

“8% 받고 더블로”... 신바람 나는 ‘벗꽃 배당’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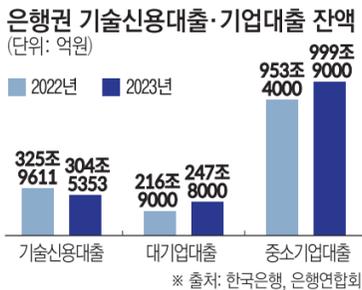
규제 줄이니 다주택자 3년래 최다... 집값 ‘봄바람’ 3

코스피(19일) 2680.26 (+31.50P)
코스닥 858.47 (+0.87P)
환율(달러당 원화) 1335.20 (-0.20원)
금리(국고채 3년물) 3.397% (-0.008%p)

기업대출 사활건 은행 혁신기술엔 등 돌렸다

기업대출 1년새 77兆 늘었지만
기술력 담보 대출은 21兆 줄어

“TCB 발급 ‘옥석 가리기’ 영향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도 한몫”



지난해 기업대출에 사활건을 은행들이 벤처·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신용대출’은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기술신용평가(TCB) 발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가 줄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그간 대출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까지 폭넓게 대출이 지원된 경향이 있었다면서 ‘옥석 가리기’가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7개 특·시·중·지방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304조5353억 원으로 전년 동기(325조9611억 원)보다 21조4258억 원 쪼그라들었다. 기존 중소기업 대출의 연장·대환, 증액을 제외한 순공급 금액을 뜻하는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으로는 같은 기간 245조5242억 원에서 230조7812억 원으로 14조7430억 원 감소했다. 이 기간 기술신용대출 건수도 72만4729건으로 13.6% 줄었다. 집행 건수는 지난해 3월 83만1425건에서 △6월 74만9679건 △9월 74만4670건 △11월 74만17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술신용대출은 신용이나 담보 여력이 부족하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중소기업에 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공급해주는 대출 상품이다. 2014년 제도가 도입된 후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들은 일반 중소기업 대출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1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받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을 강화하고 있지만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TCB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기술신용대출) 수요가 줄어든 것도 감소 이유”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기술신용대출 문턱을 높인 것과 대조적으로 기업대출은 큰 폭으로 확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1247조7000억 원으로 전년 말(1170조3000억 원)보다 6% 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은 각각 30조9000억 원, 46조5000억 원 증가했다.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라는 평가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초기에는 기술평가가 지금보다 잘 나오기도 했고, 성과지표에 반영하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늘리거나 일반대출을 기술금융 실적에 포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금융위원회 기관 정기검사에서 기술금융의 부실심사, 실적평가 및 정책자금 집행유류 등의 행태를 적발하고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이 2020~2022년 기술자격을 근거로 발급된 TCB 평가서 3856건에 대한 표본 점검을 실시한 결과 49%(1890건)가 기술금융 인정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사학위가 아닌 석사·전문의를 기술자격으로 인정하거나 도용된 학위·자격증을 인정한 사례도 드러났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코스피, 21개월 만에 최고점 ‘터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268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친 19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타 트딩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31.50포인트(1.19%) 상승한 2680.26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피가 2680선으로 마감한 것은 2022년 5월 30일(2685.90)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 관련기사 21면 신태현 기자 holjjak@

한덕수 “응급실 24시간 운영... 공보의·군의원 투입 준비”

정부, 공공의료 비상진료대책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자 정부가 비상대응 방안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시 정부는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 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 상황 악화 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 기관 비상진료 체계에 대해서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며 “12개 국군병원 응급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軍병원 개방·외래진료 확대할 것”
의협 집행부 2명 면허정지 처분 통지

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 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는 병원들의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경찰청은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수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었다. 또 이날 정부는 대한의사회 집행부 2명에게 ‘집단행

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날 서울 5대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는 등 집단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 대형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무더기 사직서 제출이 이어졌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이날 오전 4년 차를 제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모두 사직서를 냈다. 서울아산병원은 20일 아침부터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지방에서도 부산대병원 소속 전공의 100여 명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북대병원 20개 진료과 전공의 189명 전원이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전성모병원의 경우 인턴 21명 전원과 레지던트 23명(전체 48명) 등 전공의 44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도 각 지역 의대 학생들은 20일부터 동맹 휴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마약류 유통·관리 ‘통제불능’... 극약처방 내린 정부

마약류 오남용 예방찾기 ㉑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필두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까지 관계 부처의 마약류 오남용 차단망 구축이 한창이다.

식약처는 19일 올해부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투약 이력 의무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사 진료 시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을 통해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갈

6월부터 투약이력 의무확인 시행
관계부처 협업 의료기관 단속 강화
“중증·만성통증 환자 피해 우려”

은 마약류를 중독 처방받는 행위를 차단한다. 6월부터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를 시작으로 점차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식약처와 대검찰청은 현재 매달 기획·합동 점검을 통해 마약

류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적발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마약 정책에 역량을 투입하는 이유는 국내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좀처럼 통제되지 않아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월별 마약류사범 단속 인원은 2423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1월 단속 인원은 1314명과 비교하면 1000명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마약류사범 단속 누계는 총 2만7611명에 달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유통·사용·오남용

예방정책을 총괄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정식 조직으로 편성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에서 ‘마약 정정국 회복을 위한 응급조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해 불법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단속과 적발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유혹기를 중

심으로 들고 있는 불법 마약류 실태는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데,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해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의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증·만성 통증이 있는 환자는 마약류 없이는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데, 마약류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와 투약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마약류를 사용하는 임상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성주 기자 hsj@

“8% 받고, 더블로 가자”... 신바람 휘날리는 ‘벚꽃 배당’

〈하나투어〉

〈금융지주〉

동학개미 ‘4월의 보너스’

2월 말 자동차·은행 시작으로
3월 말엔 보험·증권·지주 몰려
하나투어, 배당수익률 8% 상회
4대금융지주 ‘더블배당’ 주목

하얀벚꽃 잎의 꽃잎만 보고도 ‘봄바람 휘날리며~’ 하는 노래를 매년 반사적으로 흥얼거린다면 당신은 ‘배당 좀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벚꽃엔딩’ (2012년)이 크게 히트한 뒤 생겨난 ‘벚꽃 좀비’에 빗대 최근 누리꾼이 만들어낸 신조어다.

올해부터는 ‘선(先) 배당금 확정, 후(後) 배당 기준일 지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한 달만 보유해도 ‘더블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주주환원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한껏 고조됐다. 꽃도 보고 돈도 버니 봄은



동학개미들에게 ‘돈 잔치’의 계절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다만, 시행 첫해인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분산투자 효과가 있으며, 주가 변동성이 낮은 조합을 잘 선택해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당기준일을 미룬 기업들이 최근 2023년 기말 주당배당금을 확정하고 배당기준일을 공식

하고 있다.

현재까지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하나투어다. 하나투어는 4년 만의 흑자전환에 주당 5000원의 비과세 특별 결산 배당을 결정했다. 배당수익률은 8.31%다. 배당기준일은 4월 2일로, 배당금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늦어도 3월 29일 주식을 매수해 4월 2일까지 보유해야 한다.

배당기준일은 2월 말과 3월 말에 대부

분 몰려 있다. 2월 말은 자동차와 은행, 3월 말은 보험, 증권, 레저, 자동차, 소재, 운송, 지주 등 업종으로 분산돼 있다.

배당기준일이 29일인 동아타이어는 주당 1000원에 결산배당을 결정해 배당수익률이 8.05%에 달한다. 같은날 배당기준일인 현대차의 배당수익률은 3.50%다. 은행주들의 배당도 몰려 있다. JB금융지주 (6.23%), DGB금융지주 (5.98%), BNK금융지주 (5.31%), 우리금융지주 (4.53%) 등 4% 이상의 배당수익률이 예상된다.

3월 말~4월 초에는 기아 (4.93%), 한국자산신탁 (6.64%), 현대해상 (6.12%), HL홀딩스 (5.74%), 교보증권 (4.76%), 현대글로비스 (3.58%), 코리안리 (6.8%) 등이 예정돼 있다.

배당기준일이 변경되면서 ‘더블배당’ 종목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지

난해 ‘결산 배당’과 올해 ‘1분기 배당’ 시기가 겹치는 종목은 3월을 전후로 주식을 매수하면 연속 두 번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2월에 매수해 1분기 배당기준일인 3월 말까지 보유하면 배당을 두 번 받을 수 있다.

1월 말 기준 배당기준일을 3~4월로 변경 공시한 기업들의 예상 결산 배당 합계는 11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결산 배당금액 약 29조 원의 40%에 이르는 비중이다. 1분기 배당도 주요 금융지주사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포함하면 약 4조 원에 육박한다.

배당기준일 전부터 유입되는 기관투자자들의 자금도 기대된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월 초 첫 거래일부터 KOSPI200 고배당지수의 기관 수급 추이를 보면 평균적으로 연말 배당기준일 약 45거래일 전부터 누적 순매수세가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위험이 적은 확정수익을 위해 배당주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모든 종목을 살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은행주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은행주만 사는 것보다 자동차나 건설주를 같이 사는 게 분산 효과가 있다”며 “또한 변동성이 크다면 배당락 전에 주가가 급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 낮은 종목이 유리하다”고 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롯데칠성음료

청량한 이 순간,
칠성사이다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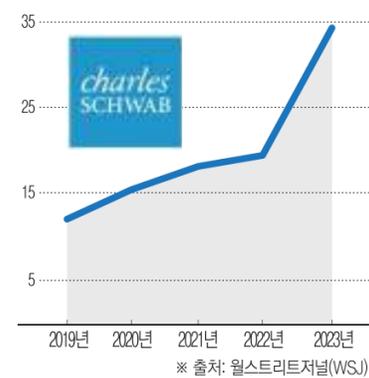
Chilsung Cider

〈10대 열광〉

美증시 ‘틴크러시’... 빅테크 큰손 부상

10대 주식계좌, 4년새 3배 이상 ↑
코로나때 유입...투자액 2년새 2배

미국 증권사 찰스슈왑
13~19세 청소년 주식계좌 수
(단위: 만개)



미국 10대들이 새로운 투자자 집단으로 떠올랐다. 최근 몇 년간 이들은 주식계좌를 급격하게 늘리고 자신들만의 정보 습득을 통해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금융회사 찰스슈왑에 가입된 10대 주식 계좌는 2019년 약 12만 개에서 2022년 20만 개로 증가했다. 지난해는 찰스슈왑이 TD아메리트레이드와 합병한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계좌가 30만 개 이상으로 불어났다. 뱅가드와 피델리티, 모건스탠리의 이트레이드 등 다른 주식 거래 중개업체들 역시 최근 몇 년 새 10대들의 보유 계좌가 급증했다고 보고했다.

계좌 수와 함께 투자금액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핀테크 앱인 그린라이트를 통한 10대들의 투자액은 2021년 1000만 달러(약 134억 원)에서 지난해 2000만 달러로 늘었다.

이들 대부분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하면서 주식 시장에 대거 유입됐다고 WSJ은 전했다. 당시는 미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에 힘입어 시장에 상당량의 자금이 몰릴 때였다. 여기에 ‘뮌 주식’ 열풍까지 불면서 연일 주가들이 오르자 10대 투자자들도 서둘러 시장에 참가했다.

최근에는 빅테크가 강세장을 보이면서 이들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올해 들어 뉴욕증시 다우존스는 3만8000선을 돌파했고 S&P500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어섰다. 10대 투자자들이 대

거 몰리기 시작한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S&P500지수는 약 55% 급등했다.

10대들의 투자 시작 시점도 갈수록 빨라지는 추세다. 지난해 뱅코브아메리카(BoA) 설문에 따르면 Z세대(1990년대 중후반~2010년대 초반 출생자)의 약 3분의 2가 중고등학교에서 처음 투자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는 바로 전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의 약 38%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가족이나 선생님을 통해 학습하거나 소셜미디어에서 주식을 배우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의 적극성이 한몫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전용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늘었다. 투자 앱 스테시는 자녀 출생 시 매주 10달러를 전용 계좌로 옮겨두면 자녀가 18세가 됐을 때 연간 약 8%의 수익률 기준으로 2만 달러 가량의 종자돈이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같은 수익률로 70세가 될 때까지 넣어서 금액은 약 100만 달러까지 늘어났다. 고대영 기자 kodae0@

규제 줄이니 다주택자 3년래 최다... 집값 상승 봄바람

집주인 16.47% 두채 이상 소유
실거주 넘어 투자 수요 늘어난 것
지방 미분양 여러채 1주택 간주
“강남보다 조정지역 투자 움직임”

전국 다주택자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수준까지 아니지만, 다주택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1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집합건물 다(多)소유자수’는 16.47로 2021년 1월 기록한 16.49 이후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개념이다. 이 지수가 커질수록 다수의 집합건물을 소유한 사람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합건물다소유자수는 집값 등락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집값이 뛰어오를수록, 집값 상승을 예상한 다주택자가 늘면서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지수는 집값 하락과 거래 절벽 현상이 극심했던 2022년 1월 16.13까

지 하락했다. 특히 ‘2주택자’ 비율은 11.02까지 줄어든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이후 집값 회복세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다소유자수는 지난해 8월 16.43에서 같은 해 11월 16.45까지 올랐다. 2주택자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1.22에서 11.24까지 증가했다. 이어서 지난달에는 다소유자수 16.47, 2주택자 비율 11.26까지 올랐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가 늘었다는 것은 실거주를 넘어 어느 정도 투자로 볼 수 있는 수요가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다주택자가 늘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이나 가격 급락 상황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금리가 추가 상승 대신 횡보세를 보이면서 다주택자들이 자금 조달 부담이 줄고, 집값 급락 위험 등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관련 세제 혜택 제고와 비(非)아파트 민간 임대 공급 확대 정책 등의 영향으로 향후 다주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주택자 대상 세제의 직·간접적 혜택이 늘어났고, 지방 일부 지역에선 낙폭과다 지역

이나 교통·개발 전망이 우수한 곳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는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취득하는 소형 또는 지방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예외를 적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추가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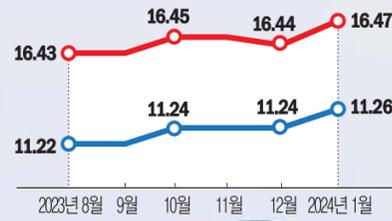
장기적으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등의 집값 상승 폭이 앞으로 확대되면, 다주택자들이 기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에 투자하는 ‘뽕뽕한 한 채’ 보유 전략을 바꿀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윤 위원은 “다주택자가 집값이 많이 조정된 지역에서 미분양 물량을 추가로 사들이는 선택을 할 때 부담감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당분간 강남지역 아파트보다 지방에서 집값이 많이 하락한, 조정 지역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부동산 집합건물 다소유자 비율 (단위: %)

※ 집합건물: 아파트, 다세대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 2채 포함 다소유자 ○ 2채 보유자



※ 출처: 법원 등기정보광장

주요 다주택자 세제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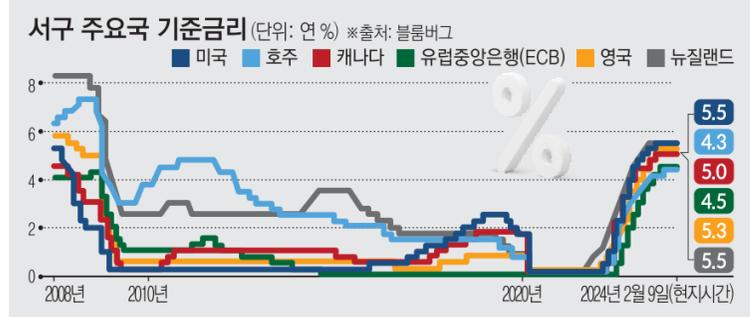
소형 신축 및 지방 미분양
신규 취득시 세부담 완화

→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 내년 5월 9일까지 연장
(기존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만 양도세 중과 적용)

※ 출처: 기획재정부



선진국 기준금리 4년 동행 마침표

뉴질랜드 “인상”... 각자도생 나서
美 연준, 연내 금리 인하 확실히
영국·호주·캐나다는 매파 강세

코로나19 창궐 후 인플레이션이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하면서 한목소리를 냈던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4년간의 동행에 마침표를 찍었다. 각기 달라진 경제 사정에 각자도생하면서 이들 사이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18일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인플레이션 목표 설정의 선구자였던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이르면 이달 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이달 말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고 4월에도 같은 폭의 인상을 단행해 금리를 연 6%까지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뉴질랜드는 1989년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수치를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통화정책을 펼친다는 개념인 물가안정목표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국가다. 블룸버그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정책 통일성을 깨뜨림으로써 선진국들의 4년간의 동기화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문제인 영국과 캐

나다, 호주도 매파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초 12년 내 최고 수준인 현 기준금리를 동결한 호주 중앙은행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국은 성명에서 “경제 전망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고 우리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매우 주의를 기울이는 중”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간 정책적으로 밀착했던 미국과 유럽도 경제 궤적이 서로 다른 탓에 엇갈린 정책 경로를 설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횡수가 논쟁거리일 만큼 건축 중단은 기정사실로 여겨지지만,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유럽에선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이 밖에도 그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며 다른 국가들과 반대로 움직였던 일본은행(BOJ)은 몇 달 내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장기적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국가별로 다양한 인구 증가율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 공급망 이동, 부동산 문제 등 각자 처한 구조적 문제와 싸워야 하는 만큼 2020년 들어 나타나기 시작한 정책적 통일성은 불가피하게 사라질 전망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 Pay로 결제 되나요? 됩니다!

다 되는 페이

준법감시인심의필 제 230609-02066-ADP (23.06.09)

* KB국민카드

정부 “진료 유지명령 발령” vs 의협 “의료 대재앙 맞을 것”

집단행동에 사법권 행사 예고

중수본, 221개 병원 전공의 대상 행정력 가동 신속·엄정하게 대처
검경 “주동자 구속수사” 강력 경고
의협 “위헌 프레임 씌워 협박” 반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번지면서 정부가 파업을 전제로 한 진료체계 준비에 착수했다. 처벌을 염두에 둔 사법권 행사도 예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이제부터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필수 의료 공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병·의원급 집단행동은 변수가 될 수 있으나, 개인의 집단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동력이 떨어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관계자들이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기 위해 들것으로 옮기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전공의들은 하루 앞선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어진다. 2020년 의협의 2차 총파업 때도 마지막 날 휴진율은 6.5%에 그쳤다.

관건은 전공의 집단행동 규모다. 2020년에는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 등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번엔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다. 정부는 집단행동 자체를 막기보다는 행정력을 활용해 그 규모를 축소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는 상황을 ‘집단행동 교사’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박 차관은 오전 브리핑에서 “(집단행동 교사)로 불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고, 오후에 곧바로 의협 집행부 2명에게 면허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또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국번 없이 129)’를 운영한다. 치료 거부 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피해사례 상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소송 지원 등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길병원, 인하대 병원 등 수도권 대형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무더기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병원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전성모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대전선병원 등에서는 이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고, 건양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등의 전공의들도 사직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부산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지역 대형 의대병원에서는 수백 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병원원이 부족한 제주도의 경우도 일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

위)는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행동을 위헌적 프레임으로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그동안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현장 점검에서 진료 업무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고발할 계획이다. 의협에 대해서는 TV토론 등을 통해 대화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협상을 통해 숫자를 줄일 문제는 아니다”며 증원 폭과 관련한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과 경찰을 통한 수사계획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외신도 고개 짓는 韓 의사수... “선진국 최하위”

인구 1000명당 의사 2.6명... OECD 최저 수준 지적
美언론 “정부 강경기조, 민심 얻었지만 의료대란 우려”

주요 외신들이 한국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를 주목하며 한국이 선진국 가운데 의사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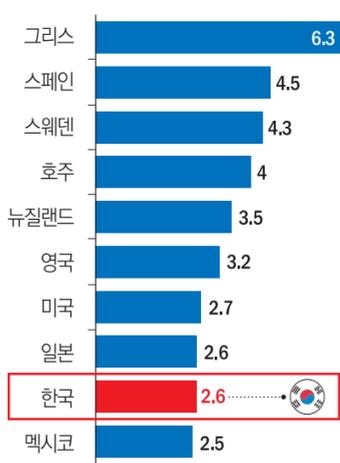
블룸버그통신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으로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 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대입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5058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의사 단체들은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집회, 대규모 파업 경고 등 강력히 반발하며 대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소개했다.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도 전했다. 블룸버그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는 데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며 “2000명 증원 수치에 대해서도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보건통계를 인용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한의사 포함 등 임상 의사) 수가 2.6명으로 선진국 중 인구 대비 의사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OECD 회원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단위: 명) ※ 지난해 기준



※출처: 블룸버그

블룸버그는 “여론조사는 국민이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기조가 의사를 만나려면 긴 줄을 서야 해 좌절감을 느꼈던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한국 정부가 앞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시도했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수련의 80%가 한 달 가량 파업을 벌이자 압력에 뜻을 접어야 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의사 집단의 입장도 전했다. 블룸버그는 “의협은 의학 학위 소지자를 늘리는 것이 의사들의 지역 편중 분포, 낮은 임금의 의료 분야에서 전문의 부족 등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P통신도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선진국 중 인구 규모에 비해 의사 수가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또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 일부 주요 전문과와 수도권 밖의 농촌 지역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 매체 BNN브레이킹은 “시민을 위한 강력한 의료 시스템을 보장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이 필요하다”며 양측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진영 기자 mint@

〈사회부총리〉

의대 총장 만난 이주호... “학생·교수 설득 힘써 달라”

교육부-40개 대학 긴급회의
“학사관리 소홀 땐 행정조치” 경고
원광대 의대생 160명 자진철회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을 둔 대학 총장들에게 “(동맹휴학) 단체행동 분위기가 확산되거나 혼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파장이 일자 교육부가 각 대학에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19일 이 부총리 주재로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 총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의과대학 학생단체가 20일부터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다”며 “우리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학습에 전념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 관리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들에게 “학생, 학부모, 교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의료를 집

중 강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4대 필수 의료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6일부터 현재까지 40개 대학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대학별 상황과 조치에 대해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상황대처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동맹휴학은 학칙에 정해진 휴학 사유가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과장 사인을 받은 라든지 학부모 동의를 얻으라든지 휴학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부총리-대학총장 간 의대 휴학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뉴스스

신청 요건이 학칙에 규정돼 있다”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신청이라면 당연히 반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나 각 대학이 의대생 동맹휴학을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

치 않다는 지적’에는 “(총장들이) 의대 교수들에게 집단행동 자체 설득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생 동맹휴학을 방지하는 등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는 “교육부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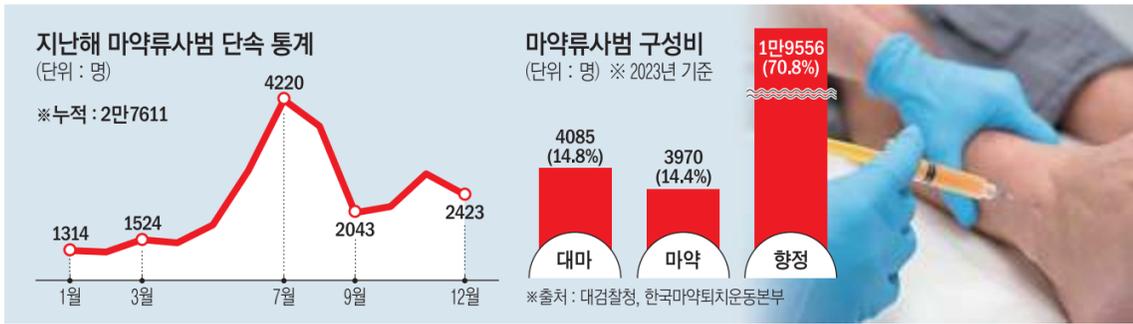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대생이 동맹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하기로 결의했다.

동맹휴학계를 최초로 제출했던 원광대 의대생 160명은 지도교수와 상담 후 이날 휴학계를 자진 철회했다. 다만 20일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계를 내겠다고 밝힌 만큼 추가 제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현경 기자 son89@

환자 “진통제 줄이면 기절”... 의사 “법대로 처방할 수밖에”

마약과 전쟁, 고통 받는 환자들

암환자 진통제 없인 생활 불가
동네 의원에선 ‘약쟁이’ 취급
“의료용 마약 규제 불필요” 지적
진료·처방 감시에 의사 진퇴양난
오남용 의심에 비상용 처방 줄여



대한 규제만 불필요하게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불법 마약류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마약류 의약품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종범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제대로 된 규제 시스템 없이 무작정 의사들에게 엄포를 놓는다고 마약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강력한 조사와 통제가 시급한 곳은 클럽과 유흥주점이지, 병원이 아니다”며 “마약류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소수 동네 의원을 잡기 위해 대학병원에 다니는 중증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꺼내든 정책이 엉뚱하게 환자들을 잡고 있다. 의사의 처방 관리가 강화되면서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환자들이 적정량의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마약류 오남용 근절이 시급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이 되레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는 지적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통증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 사이엔 최근 ‘소명하기’가 고정적인 일과로 자리 잡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날아오는 사유서 요청이 부쩍 늘어났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보충급여 기준용량보다 많이 처방해 ‘과다처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포착되면, 해당 처방을 낸 의사에게 공문을 보내 처방 사유서를 요청하고 있다. 서울모대대학원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병원에선 매달 식약처로부터 사유서 요청을 받은 교수들의 진료과와 이름을 공지한다. 우리 과가 항상 1위로 지적을 받고, 내 이름이 빠지는 때가 없다”며 “의사들은 임상경험에 기반해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데, 행정 감시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소신진료가 위축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부터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를 구성했다. TF는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오남용·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지방자치단체·경찰청과 함께 월 1회 기획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제제·졸피뎀·프로포폴 등을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서면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도 실시했다. 의사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진료와 처방이 사사건건 감시의 대상이 되면서다.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충분한 용량의 약을 처방하면, 사유서 요청이 쏟아져 들어온다. 사유서 작성으로 인한 행정 업무 부담과 병원 눈치까지 보게 된다. 진료실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법대로 할 테니, 참아라’라는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자들도 속이 타들어 간다. 필요한 만큼의 약을 처방받지 못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크다. 암환자와 복합부위통증후군(CRPS) 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 CRPS 환자 A(55) 씨는 “발작성 통증은 알약보다 주사제가 효과적이는데, 집 주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마약성 진통제 이야기를 꺼내면 ‘약쟁이’ 취급을 당한다. 주사제를 처방받으려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병원에 가야 해 갑작스럽게 통증이 찾아오면 속수무책”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너무 고통이 심한 날엔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한다. 투약을 못 하면 기절

하거나, 응급실에 실려 간다”고 말했다. 통증을 피할 방법이 줄었다는 불안감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다. 또 다른 환자 B(31) 씨는 “기존에는 1~2일치 용량의 비상용 진통제를 함께 처방받았는데, 지금은 담당 의사가 ‘마약 오남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며 비상용 약을 주지 않는다. 펜타닐 패치는 기존보다 3분의 1로 처방량이 줄었다”면서 “불안감이 우울증이 심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의료계와 환자들은 문제의 온상인 불법 마약류 문제는 방지하고, 의료용 마약에

특히 정부가 의료용 마약이 필요한 건 강 취약계층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박후정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의료용 마약류 사용 증가이유는 고령화로 암과 중증질환자가 늘고, 통증 자체를 정식 질환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필요한 것은 마약 ‘퇴치’가 아니라, 마약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주 기자 hsj@

“의료용 마약관리 현실과 동떨어져”

탁상행정엔 의사들은 한숨

기준치 처방해도 ‘중복처방’ 경고
‘마약쇼핑’ 막을 시스템 마련해야

정부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의료계 비판이 높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투약기록 확인 의무화 등 정부의 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오남용 예방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후정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새로운 규제를 고민하기 전에, 기존 제도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최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연구실에서 박 교수를 만나 의료용 마약 관리 정책의 허점을 짚어봤다. 박 교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선결 과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NIMS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통합과 오남용 의심 처방 사례를 정교하게 걸러낼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일명 ‘마약 쇼핑’ 차단 전략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것이 박 교수의 의견이다. 이는 마약 중독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같은 마약류 의약품을 수차례 처방받아 모으는 행태다. 식약처는 이를 막기 위해 NIMS와 DUR 동시 활용 대책을 제시했다.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처방 내역이 기록된 두 시스템을 대조해 중복 처방 여부를 확인하면 마약 쇼핑을 차

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른바 ‘5분 진료’로 비판을 받는 촉박한 시간에 각각의 시스템을 대조하며 환자를 진료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박 교수는 “두 개 화면에 각 시스템을 켜 놓고, 환자 진료와 처방 기록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DUR 내에선 중복 처방 팝업창이 뜨지만, NIMS와 DUR 사이엔 연계된 알림 기능이 없다”고 설명했다.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의료기관 적발 수단도 영성하다. 식약처는 2018년 NIMS를 구축해 의료기관으로부터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를 보고받고, 기준을 초과한 처방 사례에 대해 의사에게 경고를 보낸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증 환자를 진료하지만,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를 본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마약류 의약품 사용량에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이 경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점점 줄어들까 우려된다는 박 교수는 “평소 투약해왔던 의약품 용량을 갑자기 줄이면 환자들은 극심한 심리적 두려움을 느끼고, 통증 재발이나 경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의학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을 갖추고 합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은 의사뿐인데,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마약 정책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는 하나도 없다. 전문성이 결여된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성주 기자 hsj@

고객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초저가·무료배송 앞세운 中 이커머스... 韓 안방도 점령하나

토종 이커머스 잠식 위기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소비자를 흡수하며 안방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초저가·무료배송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 빠르게 정착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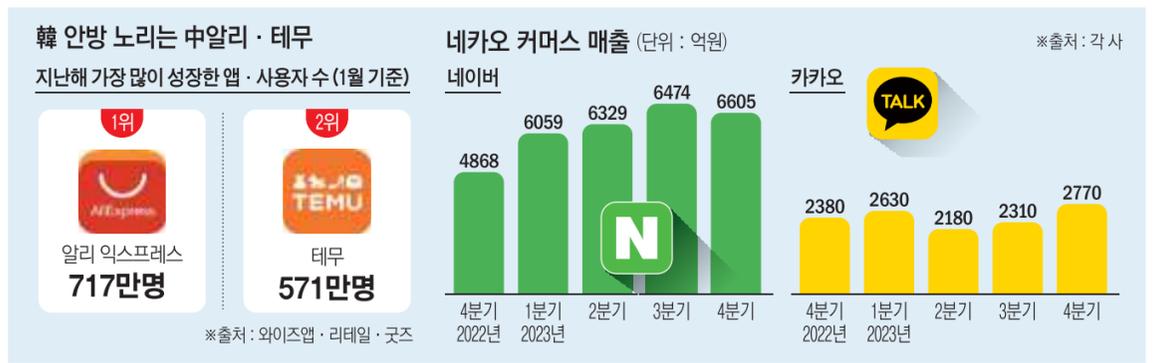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글리·고물가 경기 불황 장기화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건을 싸게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하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앱은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로 월평균 371만 명이 늘어났다. 지난해 8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테무는 월평균 사용자가 354만 명씩 늘어나며 2위를 차지했다.

해외직구를 통해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니즈와 초저가 제품을 배송비 없이 선보이는 이들의 전략이 맞

알리 반년만에 월사용자 2위에 테무는 10배 늘어난 570만명 네카오 "AI 활용 서비스 차별화"

물리면서 국내 시장에 빠르게 자리 잡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토종 이커머스 업체들을 위협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는 1월 기준 717만 5000명을 돌파했고, 테무는 570만 9000명으로 지난해 8월 이후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테무는 국내 토종 이커머스 업체 11번가(759만 명)를 금세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중국 이커머스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시장 잠식은 시간문제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지난해 커머스 사업 호조에 힘입어 최대 실적을 달성한 네이버와 카카오(네카오)도 영향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커머스 사업은 각각 41.4%



17.6%씩 성장했다. 네카오는 중국 이커머스업체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흥은택카카오 대표는 "가격 소비 중심의 이커머스 플랫폼은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카카오는 가격 소비보다 가치 소비를 지향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중국 커머스 업체들이 제공하는 상품 정보나 종류가 광범위한 만큼 네이버쇼핑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이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빠르게 침투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동향과 파급 효과를 지속

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리와 테무의 성장이 오히려 네카오 광고 실적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대표는 "중국 커머스 플랫폼은 경쟁 상대도 있지만 전략적인 파트너로도 볼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흥대표는 "가격 소비 위주의 종합물에 새로운 플레이어의 참여로 마케팅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카카오에 대한 광고비 집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알리는 현재 네이버 플랫폼에 DB(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광고를 집행 중이고 테무도 광고 집행 규

모가 늘어날 것이라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게 네이버 측의 설명이다. 정부가 중국 이커머스 공세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네카오도 AI를 활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세워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초개인화된 검색, 커머스 등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수익화하겠다고 했다. 카카오도 4800만 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에 AI 기능을 결합한 기능을 선보여 콘텐츠부터 구매까지 이어지는 광고비즈니스로 확장하겠다고 했다. 김나리 기자 nari34@

테슬라 제친 中 BYD '럭셔리 전기차' 질주 시작했다

〈비아디〉

BYD "고급 모델로 브랜드 가치 강화" 작년 4분기 순수 전기차 판매 1위 내수경기 둔화에 해외 공략 박차를 수출 목표 40만대로 2배 늘려 멕시코 공장 설립·韓 상륙 계획 글로벌 자동차 기업은 긴장 고조

중국비야디(BYD)가 지난해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럭셔리 고급차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아디는 "올해부터 여러 고급 럭셔리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고급차 생산을 늘려 단순히 스타일리스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자동차 제조사를 뛰어넘어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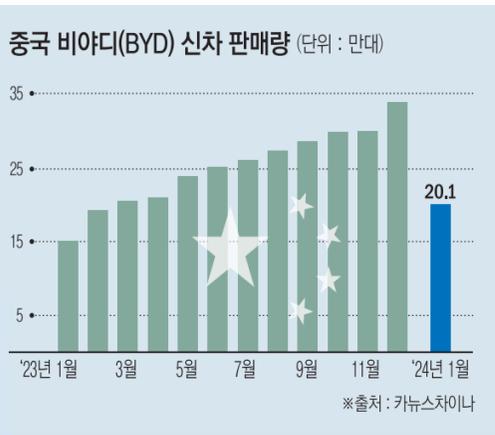
비아디는 그동안 저렴한 가격과 아우디 출신 볼프강 예거 디자이너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실제로 가장 저렴한 모델은 중국



태국 방콕에서 11일(현지시간) 열린 '방콕 전기차 엑스포'에 중국 비야디(BYD) 차들이 전시돼 있다.

에서 약 1만 1000달러(약 1468만원)에 팔릴 정도였다. 그 결과 비아디는 미국의 대표적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가장 막강한 경쟁 상대로 꼽힐 정도로 성장했다. 작년 4분기에는 52만 6000대의 판매 기록을 세우며 테슬라(48만 4507대)를 누르고 순수 전기차 판매 세계 1위에 등극했다. 여기에 고급차 제품군을 확대해 양적·질적 성장 두 마리 토끼

를 다 잡겠다는 복안이다. 비아디는 이날 올해 최고급 모델 출시 계획과 함께 전기차 수출 목표도 늘려 잡았다. 비아디가 제시한 올해 수출 목표치는 40만 대다. 이는 지난해 수출량 24만 2000대와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를 위해 비아디는 자동차를 유럽으로 운송하기 위한 선박을 사들이는 가하



방콕/EPA연합뉴스

속화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내수 둔화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중국전기차 시장은 내수 경기 위축과 정부 보조금 삭감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2022년 74%에서 지난해 21%로 대폭 떨어졌다. 이러한 추세는 비아디 판매 실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비아디 신차 판매 대수는 20만 1493대로 전년 대비 약 40% 감소했지만, 그중 수출은 3만 6174대로 사상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비아디의 공세에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일본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무역장벽을 세우지 않았다면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전 세계 대부분의 경쟁사를 거의 괴멸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자동차 단체 자동차혁신연합(AAI)도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저렴한 중국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거의 멸종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재해처벌 유예법 즉각 처리하라!



1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수도권 이어 호남서도... 中企 "중대처벌법 준비기간을"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촉구 김기문 "29일 본회의 법안 통과를"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집회를 전국에서 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단체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처벌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

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이 참가했다.

국회, 수도권(수원)에 이은 이번 결의 대회는 호남권 30여 개 지방 중소기업단체와 5000여 명의 중소기업인이 중대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결집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준비기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무리한 법 시행으로 현장에 혼선을 주고 영세기업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 달라는 절박함을 호소했다.

강장선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마음 같아서는 중대처벌법을 없애달라 호소하고 싶지만, 법이 만들어진 이상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소기업단체 대표는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업주를 냉혈한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공사 기업 대표는 "본격적인 중대처벌법 시행으로 백방으로 노력하며 매뉴얼 제작, 컨설팅 진행 등 각종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나 과도한 비용, 안전전문인력 수급 애로, 준비기간 부족 등 어려움을 겪었

다"고 토로했다.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정부 컨설팅도 작년에서야 지원이 시작됐고, 안전관리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 기존 인력으로는 적기 대응이 어렵고, 업종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은 오지 않는다"며 "기업 입장에서 너무 짧은 준비기간을 좀 더 달라"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중대처벌법 입법과정에서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처벌 유예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딱 맞춘 수트처럼
필요한 보장만 딱 맞춘

삼성 다(多)모은 건강보험

당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이니까

꼭 필요한 보장만 선택하세요
낭비없는 보험을 설계하세요

[가입시 반드시 알아두실 사항]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설명을 받으신 후에 가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시에는 충분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지급횟수, 한도, 보험금 감액지급내용, 보장개시일, 중복가입시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약관에서 정한 질병구분, 일반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 제외' 등 주요 지급제한사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필 23-1123 (브랜드광고파트, 2023.5.31 ~ 2024.5.30)]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3-02567호 (2023.06.07~2024.06.06)]

인텔 “AI PC시대 열겠다”… 내년까지 1억대 보급

성수서 ‘AI 쇼케이스’

내달 25일까지 팝업스토어 전시 최신기기 12종으로 AI체험 풍성 “AI PC, 4년내 전체 PC 시장서 점유율 80% 이상으로 확대될 것 다양한 기기로 앱 개발 뒷받침”

인텔이 올해를 인공지능(AI) PC의 원년으로 삼고, 자사의 차세대 AI 반도체가 탑재된 PC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까지 전 세계에 총 1억 대의 AI PC를 보급해 향후 본격적인 AI 시대 개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7개 PC 제조사들도 이미 지난달부터 AI 칩을 탑재한 제품들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최원혁 인텔코리아 상무는 19일 서울 성동구 플랜트스 성수 플래그십에서 열린 ‘AI Everywhere’ 쇼케이스에서 “올해 AI PC를 4000만 대 보급하고, 내년 6000만 대를 추가해 총 1억 대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AI의 활용도가 많아지면서 기존



1 19일 서울 성동구 플랜트스 성수 플래그십에서 열린 인텔 ‘AI Everywhere’ 쇼케이스 현장에서 인텔 코어 울트라를 탑재한 AI PC가 전시돼 있다. 2 온디바이스 AI PC를 통해 생성형 AI 이미지를 구현한 모습. 3 최원혁 인텔코리아 상무가 인텔의 AI PC 진출 전략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방식인 데이터 센터에만 의존하면 결국 서버가 터지게 된다”며 “워크로드를 온디바이스 AI PC로 분산시키는 게 효율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트렌드를 기회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먼저 디바이스가 많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AI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적극적으로 관련된 앱을 개발할 수 있다”며 “우리는

개발자들이 AI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인력 투자 폭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따르면 AI PC는 2028년까지 전체 PC 시장에서 약 80%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텔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에서 여러 고객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어 차세대 컴퓨팅을 제공하는데 가장 적합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텔은 앞서 지난해 12월 최초의 클라이언트용 온칩 AI 가속기가 장착된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를 출시한 바 있다. 인텔 코어 울트라는 AI 가속 기능과 전력 효율성을 극대화한 PC 플랫폼이다. 크리에이티브 작업, 스트리밍, 게임 등 업무나 일상 모든 면에서 AI 기능을 최대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온디바이스 형태로 PC 내

직접 탑재돼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여러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인텔은 이날부터 이곳에서 팝업 전시를 시작하고, 다양한 제조사들의 최신 온디바이스 AI 노트북을 전시한다. 삼성, LG, 레노보(Lenovo), HP, 에이수스(Asus), 에이서(Acer), MSI 등 7개 제조사의 최신 노트북 12종을 한자리에 모았다. 온디바이스 AI PC를 활용해 직접 생성형 AI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실제로 검색창에 ‘Cute Dog’를 입력하자 온디바이스 AI PC는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과 십여 초 내로 귀여운 강아지 그림을 만들어냈다.

이 외에도 AI로 표현한 나만의 아바타 만들기, AI가 작곡한 음악 감상, AI 포토존 등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를 활용한 다양한 AI 기능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팝업 전시는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된다.

최 상무는 “인텔은 개방형 생태계를 기반으로 AI를 구축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함께 제공해 AI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박민웅 기자 pmw7001@

정부, 원격진료·휴머노이드 로봇에 523억 투자

작년의 4배 이상 증액... 역대 최대 규모 3차례 걸쳐 ‘신규과제 지원 사업’ 공모

정부가 첨단 제조로봇과 원격진료 로봇, 일상 작업을 지원할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523억 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 125억 원과 비교해 4배 이상 확대된 역대 최대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발표한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신규 과제 지원 사업을 올해 3차례에 걸쳐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12월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민관이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2021년 5조 6000억 원 수준이던 국내 로봇 시장을 20조 원 이상으로 4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날 1차 공고를 내고, 3월까지 제조 로봇, 서비스 로봇, 로봇 부품 등 분야에서 17개 과제(총 166억 원 규모)

를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조 로봇 분야에서는 먼저 인간과 협업해 복잡한 조립 작업을 빠르게 학습하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봇 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 자동차 부품, 기계, 방산 등 14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 쉽게 적용하고 확산할 수 있는 첨단 로봇 기반의 지능형 공정모델 개발을 지

원한다.

장애인 근로자와 협업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로봇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는 원격진료 로봇 개발, 영유아 돌봄을 위한 놀이 및 식사 보조가 가능한 로봇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동성이 우수하고 양손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원천 기술과 스마트 구동기, 첨단 로봇의 안전 지

능을 설명하는 기술 등 로봇 부품,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개발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산업부는 다음 달까지 과제에 응모한 업체·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의 평가를 거쳐 4월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2차 공고는 4월, 3차 공고는 7월 각각 시행한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청년의 노후준비, dice@11pm의 세 번째 시리즈
 <브라보 마이 라이프> 콘텐츠 큐레이션 매거진

은퇴 후 어디서 살아야 행복할까? 40·50세대 맞춤 주거 가이드

‘은퇴 후 평생 살 집’

매일 밤 11시, 당신이 잠 못 드는 시간, 미래를 위한 주사위를 던져보세요

‘dice@11pm’의 세 번째 이야기, “은퇴 후 평생 살 집”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인생 2막을 앞두고 라이프스타일의 변곡점을 맞은 40·50세대는 여생을 보낼 집을 찾고자 합니다. 집은 우리에게 안식처이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dice@11pm’은 세 번째 이야기로 노후 주거지에 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단독주택의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귀농귀촌부터, 대기 행렬이 이어지는 프리미엄 실버타운까지 다양한 주거 유형을 소개합니다. 나에게 맞는 집은 무엇인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후기청년의 노후 준비 <dice@11pm>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후기청년의 노후준비 ‘dice@11pm’ 시리즈 매일 밤 11시, 미래에 대하여 많은 불안과 고민을 안은 40대 이상을 위해 인생의 지침서를 제공하려 합니다. 정부기관과 지자체, 교육기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이 책 한 권에 집약했습니다. ‘dice@11pm’은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지면 구성구석 준비된 QR코드는 독자들을 새로운 정보의 원천으로 안내합니다.

은퇴 후 평생 살 집

은-오-프라인 전국서점 판매예정

BRAND

<브라보 마이 라이프> 편집부 지음 | 166쪽 | 16,000원

끝내 접지 못한 '아이폰 폴더블'... 中서 굴욕 맛본 애플

애플, 화면 내구성 실험 검사 결과 기준치 못 미쳐... 최근 개발 중단
美·中 갈등 '애국 소비' 두드러져 中 매출 하락세... 사업 제동 우려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애플이 폴더블폰 출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중국 매출 확대를 위해선 폴더블폰 등 폼팩터(제품 형태) 변화가 필요하지만, 아이폰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폴더블폰 대응이 늦어진 탓이다.

최근에는 애플이 자체 내구성 검사에서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폴더블 아이폰' 출시를 보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중국 화웨이가 두 번 접는 폴더블폰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폴더블 아이폰의 부재는 중국 시장 공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분석적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 분석 전문가 밍치귀는 올해 애플 아이폰 출하량을 2억대(전년 대비 15% 감소)로 낮췄다. 올해 스마트폰 브랜드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폴더블과 인공지능(AI) 등 하이엔드 스마트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특히 중국 시장에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 시장 하락의 주된 이유는 화



웨이의 복귀와 하이엔드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교체에 대한 첫 번째 선택으로 폴더블폰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며 "삼성은 생생형 AI 기능 고집적화로 인해 예상보다 높은 수요에 힘입어 올해 갤럭시S24 시리즈 출하량을 5~10% 상향 조정할 반면, 애플은 아이폰15의 상반기 출하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화웨이는 두 번 접는 폴더블폰 출시를 예고하고 있고, 그 외에 현지 업체들도 폴더블폰을 내놨거나 준비 중이다.

지난해 메이트60 프로를 출시하며 3년

만에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 복귀한 화웨이는 올해 두 번 접는 트리폴드 스마트폰을 삼성보다 먼저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너는 지난해 폴더블폰 매직V2를 내놓으며 "삼성의 갤럭시Z 폴드 5보다 더 얇고 가벼운 스마트폰"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품은 작년 3분기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폴더블폰에 이름을 올렸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폴더블폰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작년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06%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애플의 중국 매출은 지난해 4분기 208억 달러로 전년 동기(239억 달러) 대비 13% 줄었다. 생산 차질에 따른 판매량 감소 때보다 매출이 더 줄었다. 애플의 중국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중 갈등 여파로 중국산 스마트폰에 대한 '애국 소비'가 커진 원인이 있다.

중국 시장은 1% 미만의 점유율을 기록 중인 삼성전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번 추락하면 다시 오르기 어려운 시장이다. 이를 위해 애플도 폴더블 아이폰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언제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IT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애플이 파트너사의 여러 폴더블 부품을 구입했지만,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프로젝트가 일시 보류됐다고 전해진다. 앞서 애플은 기기 외부에 디스플레이가 있고 현재 아이폰만큼 얇은 폴더블 아이폰을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기준이 높다 보니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관측된다.

IT 매체 폰아레나는 "애플이 폴더블폰에 편승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애플이 언제 폴더블폰을 내놓을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폴더블 아이폰을 내놓는다고 해도 2027년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게 외신들의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폴더블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이 지난해 1830만대에서 오는 2027년 700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했다.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폰 비중이 1.6%에서 5%로 높아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폴더블폰은 불황에 빠진 스마트폰 시장에서 나 홀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얼리고 떨어뜨려도 끄떡없네... 삼성D 폴더블 패널, 美 '밀리터리 스펙' 획득



폴더블 스마트폰 7인치대에 탑재
영하 32도·영상 63도서 정상 작동
중력 10.5배 속도 회전에도 멀쩡

삼성디스플레이의 폴더블 패널(사진)이 미국 국방부 내구성 표준 테스트에서 '밀리터리 스펙' 인증을 받았다.

폴더블 패널로 '밀리터리 스펙'을 받은 것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처음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신 폴더블 스마트

폰에 탑재되는 7인치대 폴더블 패널이 미국 국방부가 인정하는 군사 표준규격인 'MIL-STD 810G'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른바 '밀리터리 스펙'으로 불리는 이 표준은 극한 사용 환경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제품이 손상 없이 정상 작동하는지 평가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일상 및 아웃도어 활동에서 마주칠 수 있는 온도, 충격 등과 관련한 4가지 항목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했다.

테스트 결과 삼성디스플레이의 폴더블 패널은 영하 10도 환경에서 물을 분사

해 패널 외부를 6mm 두께 얼음으로 얼리고, 그 상태로 4시간을 유지한 뒤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또 영하 32도와 영상 63도의 환경을 연이어 2시간씩 견뎠고, 이 같은 온도 급변 상황을 12시간 동안 세 차례 반복하는 테스트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충격 테스트에서도 성능이 입증됐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1.22m 높이에서 떨어지는 방향을 각기 다르게 설정해 스물여섯 번의 낙하 실험을 버텼다. 또 중력의 최대 10.5배 속도로

회전을 가해도 이상이 없었다.

조용석 삼성디스플레이 중소형사업부 마케팅팀장은 "이번 '밀리터리 스펙' 인증을 통해, 차세대 폼팩터로 자리잡은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삼성디스플레이가 확고한 기술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폴더블은 내구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을 뒤로하고, 보다 다양한 기기 및 환경에서 폴더블 패널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인도 맞춤형 전략 통했다... 현대차, 크레타 판매 100만대 돌파 눈앞

(소형 SUV)

출시 8년 만에 국민차 반열 올라
전기차 모델 라인업 확대 박차

현대자동차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크레타(사진)'의 인도 누적 판매가 이달 중 100만 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크레타는 유럽과 맞먹는 규모로 성장한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메가 히트'한 현지 맞춤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대차는 올해 크레타 부분 변경 모델에 이어 전기차(EV) 버전을 출시하는 등 현지 전략 모델을 앞세워 인도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19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인도 시장에서 크레타를 총 98만7142대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100만 대까지 남은 판매 대수는 1만 2858대다. 크레타가 인도에서 지난해 월 평균 약 1만3109대 판매된 것을 고려하면 이달 중 100만 대 고지를 넘어설 전망이다. 2015년 7월 크레타 출시 이후 8년 7개월 만이다.

크레타는 현대차가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개발한 현지 맞춤형 전략 차종이다. 현지의 더운 날씨를 고려해 뒷좌석에도 에어컨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다. 비포장도로가 많은 현지 도로 사정에 따라 지상고를 높여 차체를 보호했다. 대가족이 많은 점을 고려해 소형 SUV이지만 최대 5명이 탈 수 있는 넉넉한 실내 공간도 갖췄다.

현지화 전략이 맞아 떨어지며 크레타는 인도에서 '국민차'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어들였다. 2015년 출시 첫해 4만여대

판매됐던 크레타는 지속해서 연간 판매량을 늘리며 지난해 역대 최대인 15만 7311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현대차의 인도 전체 판매량(60만2109대)의 26.1%를 차지했다.

인도 시장은 현대차의 중국, 러시아 시장에서의 부진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는 1996년 인도 시장에 진출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60만대를 넘어섰다. 현대차의 주요 판매 지역인 유럽 권역 판매량(63만6000여대)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대차는 크레타 등 현지 전략 차종을 앞세워 인도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16일에는 크레타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했다.

현대차는 크레타 부분변경 모델에 이어 전기차 모델을 출시해 라인

업을 확충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양산 목표도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율을 30%까지 높인다는 인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점유율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크레타는 인도 소비자들의 기호를 반영해 많은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TK현역 최대 21명 교체 가능성 국민의힘 '텃밭 물갈이'의 시간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의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면접 심사가 끝난 뒤 일부 지역의 단수 공천 및 경선 지역을 발표했다. TK(25곳) 지역에서 단수공천(4곳)을 제외한 21곳의 현역 물갈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제부터 본격 공천 시작"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19일 브리핑에서 "물갈이폭은 예상하지 못한다"며 "경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역 의원 중 교체되는 분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도 17일 TK 지역구 후보 재배치에 대해 "복잡한 문제. 방정식이 엄청 복잡하다"라고 말하며 본격 조정을 예고했다.

대구(12곳)의 경우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와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고, 5곳(중·남구, 서구, 북구, 수성갑, 달서병)이 경선 지역이었다. 경북(13곳)에서는 이만희(경북 영천·청도)·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김정재(포항 북구)·김병옥(포항 남구·울릉, 김석기(경주), 구자근(구미갑), 임이자

공관위 "재배치, 복잡한 문제" 주호영·권영진 전략공천설 유영하·최경환·도태우 등 '친박계' 공천 여부도 관심

(상주·문경), 송언석(김천) 등 6명이 경선을 치른다. 부산·경남(PK) 지역 현역 26명 가운데 10명이 단수공천, 3명이 전략 공천을 받은 점을 미루어볼 때 TK 지역의 공천 확정 비율이 낮은 편이다.

단수공천과 경선 대상 의원을 제외한 현역 10명은 추가로 경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컷오프나 지역구 재배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에는 21대 총선과 달리 단수공천 지역을 많이 발표하지 않았다"며 "이제부터 본격 물갈이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역구 재배치 가능성이 심심찮게 거론된다. TK 5선 주호영(수성갑) 의원은 인근 경북 경산 등으로의 지역구 재배치 말이 들린다. 주 의원은 17일 공천 면접에서 혐지 출마 여부 질문을 받았다. 그는 면접 후 "(선거) 승리가 목적이면 (혐지 출마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달서병에 출마한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경우 대구시장 경력을 들어 인근 다른 지역으로의 전략 공천 얘기도 나온다.

특히, 이번에는 친박(친박근혜)계 공천도 주목할만한 요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도 전장을 내민 대구달서갑은 공천이 보류된 상황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 화해 손길을 내민 만큼 당내에서는 유 변호사의 공천 가능성을 크게 보는 분위기다. 현역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이날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반박했다.

한때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던 최경환(무소속) 전 경제부총리가 출마한 경북 경산에 대해서도 공관위는 공천 심사를 보류했다. 여권 관계자는 "최 전 부총리의 지역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거물급을 전략 공천을 하기도, 그냥 두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지낸 도태우(중·남구) 변호사의 경선 점수에도 이목이 쏠린다.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공개 행보를 예고했기 때문에 친박계 공천이 얼마나 될지가 관심사"라고 했다.

이만희 기자 nancho0907@



2월 임시국회 개최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iak@

국민 39% "저출산 해결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 필요"

권익위, 제도개선 추진과제 설문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활용해야" "전보 허위가입 방지 강화" 의견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사 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제도 개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 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제도개선 과제 중에서 어떤 분야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국민의 생각을 확인하고, 우선 순위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어떤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지를 조사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 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2.7%가 '민생안정·경제 활성화'를 선정했고,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 (21.8%), '부패·예산 낭비 방지' (13.4%) 등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38.6%의 응답자가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분야에 해당하는 3개 제도개선 과제 중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서민지원 강화 방안' (34.5%)을 꼽았고, '부패·예산 낭비 방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방지 방안' (26.7%)이 많았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 과제 선정 및 제도개선안 수립 과정에 참고·활용할 예정이다.

정대환 기자 vishalist@

'의석 배분' 놓고 줄다리기... 野 비례연합 '불안한 출발'

비례의석 넘어 '지역구 양보' 요구 정권 심판 '반윤연대' 취지 퇴색 4선 김영주 의원 전격 탈당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뒤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4·10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군소 야당의 '의석 나누기' 요구가 본격화하면서 더 불안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범진보비례연합을 명분으로 위성정당 깃발을 들기는 했지만, 소수당의 비례 순번 교차 배분·접전 지역구 연대 등 과도한 요구에 직면하면서다. 소수당과의 지분 협상 과정에서 파열음이 커질 경우 당초 민주당이 기대했던 '범진보 반윤(反尹·반윤석열)연대'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야권에 따르면, 범진보 위성정당을 공식화한 민주당은 새진보연합·진보당 등과 비례는 물론 지역구 연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전날(18일) 위성정당 불참을 결정한 녹색정의당도 민주당에 접전 지역구 연대를 제안하면서 관련 협상에 가세하게 됐다.

1석 진보당은 현재 지역구 253곳 중 80

여곳에 예비후보를 등록한 상태다. 민주당에 지역구 10여곳 안팎 연대를 제안했다는 설도 있었지만, 진보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6석 녹색정의당은 민주당과 지역구 연대만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지역구는 대개 진보세가 강해 민주당 자체 공천 경쟁도 치열한 곳이다. 민주당은 연대 기준으로 '경선'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비교적 당세가 미미한 군소 야당이 반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비례 의석을 둘러싼 지분 다툼도 가시화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등 3개 군소 야

당이 연대한 새진보연합은 최근 민주당에 소수당과의 비례 순번 교차 배치·지역구 단일화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비례 지분을 양분하고 일부 지역구 의석까지 내어달라는 취지다.

당내에선 싸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매개로 범진보 연대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논의의 저울추가 의석 문제에 쏠린 데다 이른바 역차별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상호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진보정당에 계신 분들이 너무 욕심부리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전선을 만드는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된다"면서 "전체적으로 야권의 이해관계가 좀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주 의원은 이날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4선 의원에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그는 당이 자신을 '하위 20%'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모멸감을 느낀다"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다. 정호영 기자 moonrise@

개혁신당 '총선 전권' 이준석에 위임... 이낙연 측 "전두환이나"

선거운동과 정책전권을 두고 파열음이 터져나온 개혁신당이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통합 시도에 들어갔으나 갈등만 격화됐다.

비공개 회의에선 "이제 회의냐"는 말이 회의장 밖까지 들릴 정도로 고성으로 갔다. 특히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선거운동·정책 전권 위임 안건을 논의하던 중 반발한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최고위 고성 속 이낙연·김종민 퇴장 공천 주도권 놓고 갈등폭발 전망도

"이준석 사당화하나. 전두환이 나라 어수선하니 국보위 만들어 전권 위임해 국회 해산시킨 것과 뭐가 다르냐"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준석 공동대표에 선거운동·정책 결정 전권 위임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설치 △4대 위기전략센터 신설 △정무직당직자 임명 등 4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이중 선거운동과 정책 결정 전권을 위임안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 최고위원이 이석한 채로 의결이 이뤄졌다.

이낙연 공동대표와 함께 회의장을 나

선 김 최고위원은 "전두환이 나라 어수선하니 국보위 만들어 여기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전체를 구체적 업무 명시도 없이 이준석 공동대표 개인에게 맡기는 건 민주당에서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책 결정권도 위임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회의장을 나선 후 묵묵부답으로 이동해 차를 타고 이동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갈라선 형국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갈등을 봉합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총선이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데다 각 세력이 뭉친 근본적 이유가 총선 승리인 만큼 하루 속히 갈등을 수습하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번 내용이 봉합되더라도 조만간 지역구 및 비례대표 공천 국면에 가면 양측의 주도권 다툼은 더욱 심각하게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있다.

정영민 기자 oin@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꿈과 열정의 스매시

IT'S SHOW TIME!

지금 4센티의 작은 공 속에 담긴 무한한 꿈과 열정
두고 봐! 치열한 랠리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우리들의 힘찬 스매시를

탁구 국가대표팀의 꿈을 향한 도전에 신한이 함께 합니다



신유빈



윤효빈



이시온



이은혜



전지희



박규현



안재현



이상수



임종훈



장우진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공기관 의무채용 지역인재, 지역거점 국립대가 싹쓸이”

6년간 8개 공공기관 채용 결과
6개 기관 절반이상 지저국 출신
국민연금공단 74%로 가장 심각
“전문성 부재·파벌형성 등 우려”

2018년부터 도입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가 지역거점국립대학교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지역거점국립대 출신 편중 현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시행 6년,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쏠림현상 발생’이란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28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고졸 채용 시)한 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해

지역별 신규채용 지역인재 최다 대학 (2018~2023년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산)	부산대	58%
신용보증기금(대구)	경북대	52%
한국전력공사(경주·전남)	전남대	59%
한국가스안전공사(충청권)	충북대	35%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	경상대	67%
한국도로공사(경북)	경북대	49%
국민연금공단(전북)	전북대	74%
한국관광공사(강원)	강원대	47%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당 지역 출신 우수 인재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억제해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역인재 신규채용률은 2014년 10% 수준에서 제도가 도입된 2018년 23%, 2019년 26%, 2020년 29%, 2021년

34%, 2022년 38%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역거점국립대로의 해당 제도 쏠림현상이 심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지역별로 규모가 큰 8개 공공기관의 지난 6년간(2018~2023년) 채용 결과를 보면 6개 기관에서 대졸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 중 절

반 이상이 지역거점국립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지역의 국민연금공단은 전북대 출신이 74%(280명 중 208명)를 차지해 8개 기관 중 소재 지역거점국립대로의 쏠림현상이 가장 두드러졌다.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최근 6년간 지역인재로 입사한 사원의 58%가 부산대(147명 중 86명), 22%가 부경대(147명 중 32명) 출신이었다. 경남 지역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67%가 경상대(283명 중 190명), 19%가 창원대(283명 중 53명) 졸업자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경북대와 영남대가 높은 비중을 보였다. 신용보증기금은 경북대와 영남대가 각각 52%(211명 중 109명)와 18%(211명 중 38명), 한국도로공사는 경북대 49%(286명 중 139명), 영남대 34%(286명 중 97명)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는 59%가 전남대(681명 중 401명), 18%가 조선대(681명 중 124명) 출신이었다.

반면 충청 지역에 위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충북대 35%(148명 중 51명), 교통대 20%(148명 중 30명), 충남대 10%(148명 중 15명), 기술교육대 10%(148명 중 15명)로 비교적 다양한 대학 출신이 고루 분포했다.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대와 연세대(원주)가 각각 47%(45명 중 21명), 36%(45명 중 16명)로 양분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편중 현상이 고착화하면 조직 구성이 특정 출신대학에 편중되거나 기관 내 특정 부문 종사자의 전문성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기관 내 파벌 형성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네덜란드〉

‘韓-和 반도체 동맹’ 첫 실무회의… 산업정책 공유

설계·장비 등 분야 기술 협력 방안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다각화 논의
산학연 유기적 연계 강화기반 마련

‘반도체 동맹’ 구축을 약속한 한국과 네덜란드가 산업 정책 실무 첫 회의를 열고 양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을 공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과 세르필 타시오글루(Serpil Tascioglu)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핵심분야·산업정책국장을 수석 대표로 ‘한-네 반도체 대화’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네덜란드는 ASML, ASM, NXP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반도체 공급망 핵심 국가다. 양국 정상은 정부와 기

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양국은 반도체 분야 총괄 부처의 정책 공조를 위한 국장급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

이날 대화에서 양국은 반도체 산업 정책을 공유했으며, 우리 측은 국제법업체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정책과제를 이행하면서 주요국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양국은 설계·장비·패키징 등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통 현안인 인력양성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의 한-네 교차 개최 및 참여 대학·기관 확대를 통한 프로그램 다각화를 논의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양국

산업간 연계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재직자 교육’ 등 주요 계기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색 기회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이번 대화의 연례 개최에 합의, 양국 반도체 협력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정부 및 산학연 간 반도체 협력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해 나갈 기반도 마련했다.

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해 양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농협 ‘정월대보름맞이 할인 해부럼’

농협은 ‘정월대보름맞이 할인 해부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모델들이 부럼·오곡밥 등 먹거리를 선보이는 모습.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농협 하나로유통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정월 대보름 할인 해부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모델들이 부럼·오곡밥 등 먹거리를 선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30년 국채선물’ 첫 거래… 16년만의 신규상장

“초장기 국채거래 활성화 기대
효과적인 위험관리 수단 될 것”

30년 국채선물이 16년 만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됐다. 10년물 국채선물 상장 이후 16년 만에 초장기 금리변동 리스크에 대한 헤지수단으로서 기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재정당국은 보다 효과적인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기능을 다하는 한편 초장기 국채거래 활성화와 원활한 발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에 새로운 국채선물이 상장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3년물, 2003년에 5년물에 이어 2008년 10년물 이후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30년 국채선물시장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3년(1999년)·5년(2003년)·10년(2008년) 국채선물에 이어 16년 만에 30년 국채선물이 도입된 것이다. 국채선물은 국고채를

표준화된 시장(한국거래소)에서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일정한 수량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인수도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기념식에 참석한 김연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국채선물시장은 1999년 출범 이후 세계 6위 시장으로 성장하며 국채현물시장의 발전을 뒷받침해왔다”며 “30년 국채선물 상장으로 단기를 장기물·초장기물까지 선물상품을 완비해 국제시장 발전에 또 하나의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30년 국채선물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 거래수수료 한시 면제에 더해 국고채전문딜러 평가에 30년 국채선물 거래실적을 반영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시장은 그동안 초장기 국채의 경우

금리가 오를 때 리스크 헤지 수단이 없었지만 30년물 국채선물 상장에 따라 국채의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돼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장기 재정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초장기국채 발행량 중 국고채 30년물 비중은 약 76%를 차지했다. 안정적인 재정자금 운용을 위해 초장기 국채선물 발행이 중요한 상황에서 리스크 보완이 가능한 선물이 상장되면서 투자자들의 호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30년 국채선물의 기초자산이 되는 30년 국채 현물의 안정적 발행과 유동성 제고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시장 유동성이 떨어지는 경과물을 흡수하고 30년 지표물을 신규 공급하는 교환 규모를 월 5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고용부·안전보건공 “中企 중대재해 원천차단”

‘예방지원 대응 결의대회’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은 19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돼 중소기업 재해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한 정부의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안중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 두 기관의 간부와 전국 기관장이 모두 참석한 첫 사례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장관은 ‘산업안전대진단’ 추진 현황과 계획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선언문’을 통해 △산업안전대

진단의 성공적 완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지원 △안전 문화·의식 확산 노력에 총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을 추진 중이다. 이들 기업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10개 핵심 항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컨설팅, 교육·기술지도,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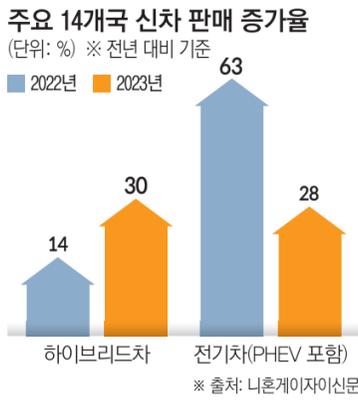
이 장관은 행사에서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에는 즉시 대응하고, 안전보건공단 30개 일선 기관의 상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지도·안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2023년 기준>

하이브리드차 전성시대... 글로벌 판매 30% 급증

전기차, 저가형 모델 출시 낮고
美 한파로 배터리 신뢰성 약화
PHEV 합산해도 판매 28% ↑
장기적으로 전기차 우세 전망도



지난해하이브리드차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전년 대비 글로벌 판매량 증가율이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의 합산을 뛰어넘었다. 충전의 불편함과 고가를 이유로 전기차 성장이 둔화한 틈을 타 하이브리드차가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시장조사업체 마크라인스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14개국의 지난해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421만 대를 기록했다. 전기차와 PHEV 판매량은 전년 대비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2년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이 각각 14%, 63%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성장세가 크게 뒤집혔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7%로 나타나, 2년 전보다 2%포인트

포인트(p) 커졌다.

탈탄소를 주도하며 전기차 보급에 앞장섰던 유럽에서의 하이브리드차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의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339만 대를 기록했다.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도 28%로 나타났지만, 2022년에 30% 증가율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소폭 둔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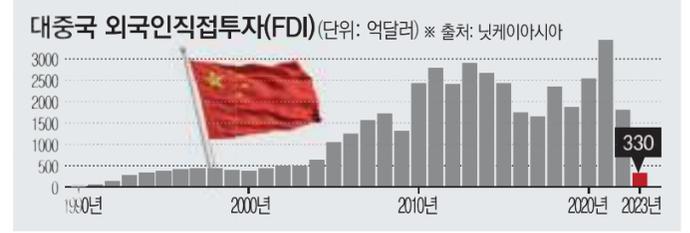
하이브리드차 시장의 절대강자인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패재를 부르고 있다. 도요타의 지난해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344만 대를

기록해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엘릭스파트너스의 스키 모도유기 전무이사는 “북미 한파로 추운 환경에 취약한 전기차의 약점이 드러나고 저가형 모델이 출시되지 않은 점이 판매량 둔화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세계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축소된 영향도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을 비롯해 영국, 스웨덴 등이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폐지했다. 중국은 2022년 말 보조금 정책을 종료했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차종이 축소됐다.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영국 컨설팅업체 글로벌데이터는 2026년 세계 전기차 수요가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2000만 대를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2035년에는 전기차 수요량이 5000만 대에 달해 자동차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키 전무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연구·개발(R&D)을 통해 현재 전기차의 약점을 극복한 모델을 내놓을 것”이라며 “하이브리드차 판매량 증가 추세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아현 기자 cahyun@



對中 외국인 투자, 30년來 최저

작년 80% 줄어 330억弗 불과
해외자본 유치 이후 가장 적어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지난해 3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당국의 압박과 미국의 제재로 인해 외국기업들이 빠르게 중국을 떠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19일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 산하 영자지 닛케이아시아(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전날 발표한 국제수지에서 지난해 외국기업들의 대중국 FDI가 전년보다 80% 급감한 330억 달러(약 44조 원)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연속 감소한 것이자 2021년 기록한 사상 최고치 3340억 달러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또 1992년 당사오핑이 남순강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FDI 촉진 정책을 추진한 다음 해인 1993년의 275억 달러 이후 최저치다. 한 마디로 중국이 해외자본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이는 중국 경제 성장 모델이 기로에 서 있음을 뜻한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FDI 급감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 정부가 스파이 단속 등 국가안보에 더욱 집중하면서 외국기업들이 중국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꼽혔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투자 전 경영상황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 7월 1일부터 반감법(전격 확대 시행되면서)이 적용되면서 어렵게 됐다.

중국 당국은 시장조사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고, 외국기업 근로자들이 구금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파인셀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조사업체 깰럽은 지난해 중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연대해 중국에 가하는 첨단반도체 제재도 악영향을 미쳤다. 미국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인 테라다인은 주요 생산 시설을 중국 장쑤성에서 말레이시아로 이전했다. 영국 인공지능(AI) 유니콘 기업 그래프코어도 최근 중국 직원 대부분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장기화하는 것도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이유로 꼽힌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국내 수요가 부진하고 디플레이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진영 기자 mint@



기시다 “우크라 강력 지원”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가 19일 자국을 방문한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와 함께 도쿄에서 열린 ‘일본-우크라이나 경제부흥 추진회’에 참석해 박수 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농업에서부터 제조업, IT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경제 발전을 목표로 민간 합동으로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는 물론 일본과 세계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美 지원 주춤하자... ‘우크라 복구’ 실리 챙기는 日

기시다, 우크라경협 50건 서명
선제 대응으로 전후 사업 선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정치권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피로를 느끼는 가운데 일본이 발 빠르게 실리를 챙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양국은 일본 도쿄에서 ‘일본·우크라이나 경제부흥 추진회’를 열고 본격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롯해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 등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약 300명이 참여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농업과 제조업, IT 등 폭넓은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강

력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는 물론 일본과 세계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양국은 50건 이상의 경제협력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일본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그동안 100억 달러(약 13조3500억 원) 이상의 다양한 지원을 해 재정 지원 면에서 4번째 나라”라며 “(이번 협정이)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강경파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법안 처리를 반대하자 전환은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는 EU의 약속도 기한 내에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등이 유럽 내 생산을 고집했지만 정작 생산역량이 부족해 충분한 양을 만들어내지 못한 탓이다.

닛케이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

크라이나 지원이 의회에 가로막히는 한편, 최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을 위협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유럽 각국이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투자 촉진을 위해 새로운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투자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도 개시한다. 양국 간 투자와 무역 확대를 위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 사무소도 설치하는 한편, 일본 경제인의 현지 방문 절차도 추진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우크라이나 모든 지역을 ‘퇴피(피난) 권고 지역’으로 유지하되, 복구 및 부흥사업에 중사하는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현지 방문을 허용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전쟁 여파가 덜한 우크라이나 서부지역 방문을 조건으로 상용 비자 발급도 나쁘다.

김준형 기자 junior@

中 기업은 헝가리로 ‘제재 도피’

BYD·CATL 등 공장 건설
미국 포위망 약한 고리 노려

중국 기업들의 헝가리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미·중 대립이 격화하는 시점에서 대중국 포위망을 뚫고자 친중 성향의 중유럽 국가 헝가리로 몰려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선도기업 비야디(BYD)는 헝가리 세계드에 자사 유럽 첫 전기차 조립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비야디는 지난 달 20일 신공장 부지 취득을 위한 계약서에 서명했다. 총공사비만 수십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 프로젝트는 헝가리 경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도 하반기 헝가리 동부 도시 데브레첸에 신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유럽에서 독일에 이어 두 번째 생산지가 될 이 공장은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미 생산 공정 인력 채용에 착수했으며, 이곳에

서 만들어진 제품은 독일 등 약 30개 업체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국의 또 다른 배터리 기업 EVE에너지가 작년 11월 배터리 공장을 착공했으며, 저장화유코 발트도 헝가리 북서부 지역에 유럽 최초 리튬 배터리 소재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대형 계측기 제조사 웨이싱그룹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인근에 연구·개발(R&D) 및 생산 기지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기업들의 헝가리 진출의 배경에는 독특한 양국 관계가 자리잡고 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광역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 정상회의에 유럽연합(EU) 국가 정상 중 유일하게 참석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민간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양국 정상회담 등이 현지 진출 가속화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유럽의 대중국 포위망에서 ‘약한 고리’인 헝가리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측면도 있다.

변효선 기자 hsbun@

“프리미엄 통했다”…삼성·LG, 세계 TV시장 절반 점령

지난해 합산 점유율 46.4%

삼성전자, 매출 기준 30.1%
Neo QLED·초대형 제품 전략
프리미엄 앞세워 18년째 선두
LG 올레드TV 11년 연속 1위
75형 이상 시장서 60% 압도적



삼성전자 모델들이 18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를 달성한 삼성전자 TV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LG 시그니처 올레드 M(97M4).



사진제공 삼성전자·LG전자

글로벌 시장 악화속에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해 전 세계 TV 매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금액 기준 점유율 30.1%를 기록하며 18년 연속 선두자리를 유지했다. LG전자는 올레드(OLED)TV 시장에서 11년 연속 1위를 수성했다.

19일 시장조사업체 유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3년 글로벌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30.1%의 점유율을, LG전자는 16.3%의 점유율을 보여 합산 46.4%를 기록했다. TV 시장 침체가 지속하고 있음에도 시장 수요의 절반가량 차지한 셈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 TV는 네오(Neo) 퀀텀닷발광다이오드(QLED)·초대형·라이프스타일 등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한 판매 전략을 통해 18년 연속 1위의 자리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네오 QLED를 포함한 삼성 QLED를 831만대 판매했다. 2017년 삼성이 QLED를 처음으로 선보인 이후 작년까지 7년 동안 누적 약 4400만대 가량 판매하며 프리미엄 TV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 TV는 2500달러(약 333만원) 이상 프리미엄 시장과 75형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도 굳건한 1위를 지켰다.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은 작년 한 해 매출 기준 60.5%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2022년 48.3% 대비 12.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보여줬다.

75형 이상 초대형 시장의 경우 삼성은 매출 기준 33.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특히 네오 QLED 라인업 중 가장 큰 사이즈인 98인치 판매 호조로 90형 이상 초대형 시장 점유율 30.4%로 1위를 기록하는 등 초대형 TV 시장에서도 강세를 이어나갔다.

OLED TV 시장에서도 작년 한 해 삼성전자는 출시 2년 만에 100만대 판매를 넘어섰으며, 매출 기준으로는 22.7%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특히, OLED 라인업 이점자 확대되는 올해부터는 OLED TV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사장은 “글로벌 TV 시장 18년 연속 세

계 1위라는 결과는 소비자들께서 주신 믿음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일상을 더욱 가치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혁신들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전 세계 올레드 TV 11년 연속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으며 올레드 ‘명가’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LG 올레드 TV 출하량은 약 300만 대로, 출하량 기준 점유율 약 53%를 차지했다. 다양한 폼팩터와 업계 최다 라인업을 앞세워 올레드 TV 시장 내 확고한 1위를 이어갔다.

전체 올레드 TV 시장에서 75형 이상 초대형 TV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은 25%를 넘어섰다. 75형 이상 초대형 TV가 차

지하는 출하량 비중 역시 13.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75형 이상 초대형 올레드 TV의 출하량은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성장률(CAGR) 70%에 육박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75형 이상 초대형 올레드 TV 시장서 출하량 기준 60%에 육박하는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올해 무선 올레드 라인업을 확대하고 △한 차원 진화한 전용 AI 화질·음질 프로세서 △웹(web)OS 기반의 맞춤형 고객 경험 등을 기반으로 한층 더 강력해진 LG 올레드 TV를 앞세워 초대형 프리미엄 TV 수요를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SK하이닉스 광노정 “美패키징공장 부지 검토 중”

인디애나 포함 다각도 살피는 중
키옥시아·WD 합병엔 동의 안해



질 전망이다. 그는 또 일본 낸드플래시 생산업체 키옥시아(옛도시바메모리)와 미국 웨스턴디지털(WD) 간 합병 논의가 재개될 조짐이 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양사 합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면서도 협력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남겼다.

광 사장은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자산 가치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대로 유지 중”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일본의 교토통신은 키옥시아가 웨스턴디지털과의 경영 통합 협상 재개를 위해 물밑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을 통해 키옥시아에 약 4조 원을 간접 투자한 상태여서 양사 합병에는 SK하이닉스의 동의가 필요하다. 웨스턴디지털은

지난해 반도체 메모리 사업을 분리해 키옥시아홀딩스와 지주사를 설립해 경영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SK하이닉스 반대로 일단 무산됐다.

다만 그는 “협력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오픈돼 있다”며 “우리와 키옥시아 간 원인을 위해 협력할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민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네덜란드 ASML의 최신 노광장비 ‘하이 뉴메리컬라이퍼처(NA) EUV(극자외선)’를 도입할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입 시점에 대해 “필요한 시점에 늦지 않게 온타임(on time·제때) 들 여오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저희 제품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신규 반도체 생산공장인 충북 청주 M15X의 공사 재개 시점에 관한 질문에는 “시황과 고객 상황을 보며 해야 해서 지금은 정해진 것이 없고, 신중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정부 “조선업 국내인력 양성 핵심은 처우 개선”

고용부·거제시 등 인력충원 대책
“외국인 인력 궁극적 해결책 아냐”

고용노동부와 거제시 등이 국내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숙련공 양성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일시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도 당장의 급한 불은 끄지만, 결국 국내 인력 확충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을 비롯해 인력난이 심한 업종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후 3개월, 6개월 차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약 2만 4800명의 청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소가 밀집한 거제시 역시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협력사 재직자들에게 2년 근무 시 만기 공제금 8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에 약 25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외에도 거제시 바깥에서 전입해 3개

월 이상 조선업종 중견 및 중소기업에서 일한 사람에게는 최대 1년 간 월 30만 원의 이주정착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에서 국내 인력을 조선업계에 유치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는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로는 국내 인력을 완벽히 대체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이다.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문제, 작업 미숙도로 인한 품질관리의 어려움, 문화 차이 등이 대표적인 단점으로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롭게 충원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기초적인 교육만 받아 작업 숙련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적도 워낙 다양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현재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이들과 함께하며 작업을 하나하나 행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업계는 정부의 단발적인 정책으로는 국내 인력을 장기간 조선업에 종사하도록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국내 노동자들이 조선업을 꺼리는 것은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 때문”이라며 “전체적인 임금 인상과 사내 복지 개선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의 지원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롯데케미·정밀화학, 여수 헤셀로스 공장 생산 협력

원료조달·생산 한곳에서
본격 스페셜티 사업 확장



여수 헤셀로스 공장 전경. 사진제공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과 롯데정밀화학이 스페셜티 제품 확장을 통해 불확실한 대외 상황을 극복하고 수익성을 도모한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12월 롯데정밀화학의 대표 스페셜티 제품인 헤셀로스(HEC·Hydroxy Ethyl Cellulose) 생산공장을 롯데케미칼 여수 개발 부지에 건설을 완료해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헤셀로스는 에틸렌옥사이드(EO·Ethylene Oxide)와 펄프를 원료로 하는 셀룰로스 유도체다. 주로 수용성 페인트, 생활용품, 화장품 등 여러 분야에서 점성과 보

습성을 부여하는 첨가제로 사용된다.

롯데케미칼은 이번 공장 준공으로 헤셀로스 제품의 주요 원료인 EO를 기존 육상 운송이 아닌 배관을 통해 안전하게 공급한다. 이에 따라 약 1만 톤(t)의 헤셀로스 제품이 원료 조달부터 생산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위탁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된다.

롯데케미칼은 EO 제품의 판매와 헤셀로스 위탁 생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롯데정밀화학은 안정적인 원료 조달을 통해 미래 성장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현대차그룹, ‘제로원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 모집

SDV·스마트팩토리·ESG·AI 주제

현대자동차그룹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혁신 신생 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제로원 액셀러레이터’의 2024년 공개 모집을 19일 시작했다.

제로원 액셀러레이터는 현대차그룹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올해로 7년째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스마트팩토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공지능(AI) 등 4개 주제 총 14건의 협업 프로젝트에서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은 프로젝트 개발비를 지원받고 현대차그룹이 운영하는 제로원 펀드를 통한 지분 투자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다. 강문정 기자 kangm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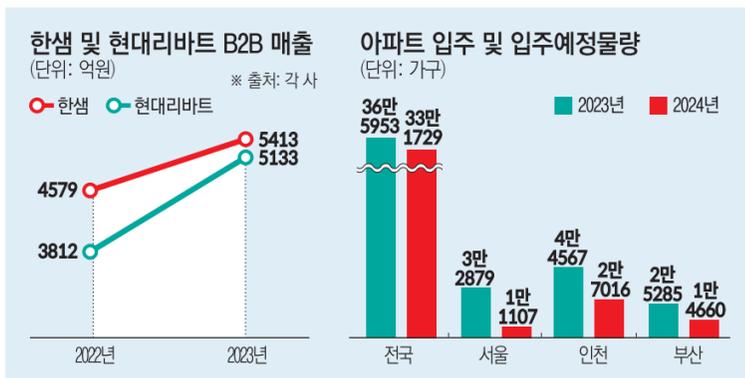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 공급 가뭄... 가구업계 B2B '시름'

작년 입주물량 많아 호황 누렸지만 올해 10% 감소 내년도 최저 수준 하방압력 줄어... 실적 타격 불가피

지난해 가구업계의 실적을 견인한 B2B(기업 간 거래)가 올해를 비롯해 당분간 둔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작년 대비 10% 가까이 줄어드는 데다 내년 입주물량 역시 1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공급가뭄으로 인한 가구업계 B2B 사업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4분기 한샘의 B2B 가구(특판 및 자재판매) 매출은 1428억 원으로 전년(1264억 원) 대비 17.4% 늘었다.

작년 전체로 보면 B2B 매출은 5413억 원으로 전년(4579억 원) 대비 18.2% 늘



었다. 이 중 자재판매는 1829억 원에서 1315억 원으로 30% 가까이 줄어든 반면 특판 가구 부문은 2750억 원에서 4098억 원으로 무려 49% 확대됐다. 특판은 신규 분양아파트 건설현장에 주방가구와 수납 가구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B2C(기업 소비자간 거래) 매출이 1조 1201억 원으로 전년(1조2723억 원) 대

비 12% 감소한 사이 B2B 규모는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한샘의 전체 매출이 1조 9669억 원으로 전년(약 2조 원) 대비 1.7% 감소한 가운데 B2B 매출 규모는 늘면서 매출 비중이 22.8%에서 27.5% 확대됐다. 사실상 B2B가 지난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리바트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대리바트의 지난해 B2B 가구 매출은 5133

억 원으로 전년(3812억 원) 대비 34.6% 커졌다. 빌트인이 43.5% 확대됐고, 오피스 가구 역시 16.2% 증가했다. 이 중 오피스 가구 매출은 2022년에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엔 월평균 20%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B2B 실적이 가구업계 실적 하방압력을 떠받친 것은 지난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36만5953가구로 파악된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처럼 B2B가 실적을 받쳐주진 쉽지 않아 보인다.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총 33만1729가구로 작년 대비 9%(3만4224가구)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감소물량 대부분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다. 지난해 3만 가구 넘게 입주물량이 풀려던 서울은 올해 1만1000가구 수준으로 물량이 반토막 날 전망이다. 또 △인천 4만4567가구 → 2만7016가구 △대구 3만4784가구

→ 2만3457가구 △부산 2만5285가구 → 1만4660가구로 입주 물량이 1만 가구 이상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의 입주물량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물량이며 사업 지연 가능성, 조합원 입주물량 변동 등의 변수로 실제 공급량은 더 적을 수 있다.

일각에선 올해 입주물량 감소가 앞으로 3~4년간의 입주가뭄의 시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가구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B2C 업황이 부진했던 반면 입주물량이 많았던 덕에 B2B가 이를 보완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올해는 입주 물량이 다시 줄어 관련 부문 실적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B2B 부문은 B2C 대비 수익성이 높지 않아 가구업계가 안정적인 실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선 주택 거래 시장이 회복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사업 다각화·원가 절감 집중... 양지사, 4년만에 흑자 날개 달까

작년 호실적 힘입어 반등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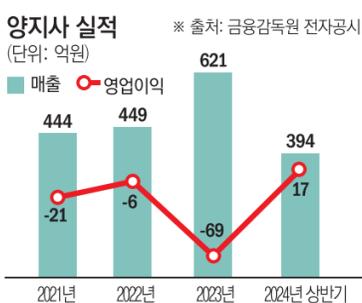
국내대표적인 다이어리 제조업체인 양지사가 4년만의 흑자 전환을 달성할지 이목이 쏠린다. 작년 하반기 호실적을 낸 양지사는 올해 상반기에도 생산 프로세스를 개선, 원가를 절감해 흑자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양지사(6월 결산법인)는 2024 회계연도 상반기(2023년 7월~2023년 12월) 매출이 394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6%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7억 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했다.

분기별로 나눠보면 회사는 1분기에 매출 112억 원, 영업이익 8700만 원, 2분기에 각각 282억 원, 16억여 원을 기록해 2분기 실적 개선폭이 더 컸다. 새해 다이어리 수요가 집중되는 연말 계절적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지사의 실적 개선은 해외 매출 비중이 급감한 가운데 거둔 성적표다. 양지사는 국내 인쇄업계가 포화상태를 넘어선 한계를 절감하고 일찌감치 해외 진출을 통해 수익 창출을 꾀했다.

회사는 1978년 호주 수출을 시작으로 유럽과 미주, 일본 등 다양한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며 수출 비중을 키웠다. 이에 따라 회사는 2019 회계연도에 전체 매출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웃돌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수출 비중은 지속해서 내려갔으며 이번 회계상반기에는 13%까지 떨어졌다.

이에 양지사는 2022년 헤드폰, 이어폰 등 디지털 기기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디지털명품존을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한 뒤 흡수합병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꾀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지난 회계 65억 원, 이번 상반기 34억 원의 디지털 기기 관련 매출이 발생했다.

양지사의 연속 적자에는 수주 급증에 따른 생산능력 부족으로 일부 물량을 외주로 돌린 데 따른 원가율 상승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회사의 매출 원가율은 2022 회계연도 79%에서 2023 회계연도에 91%로 크게 올랐고 이 기간 영업손실은 6억 원에서 69억 원으로 확대됐다.

조남호 기자 spdran@

박보검이 알려준다... 과학적인 침대 원리

에이스침대, 테스트 영상 공개

에이스침대는 신규 디지털 콘텐츠 '침대는 왜 과학일까?'의 영상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에이스침대가 작년 하반기부터 전개하고 있는 '침대+과학'의 의미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됐다. 모델 박보검이 다양한 소재의 비교시험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과학적인 침대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소개되는 시험은 △충격흡수 테스트 △

매트리스 압력 분산 테스트 △ 스프링 줄임 롤 테스트 △ 스프링 녹 발생 테스트 등 총 4가지다.

충격흡수 테스트 영상은 독립형과 연결형의 이중구조로 이뤄진 '하이브리드 Z 스프링'과 독립형 스프링을 비교하는 내용을 담았다.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우리가 깨지는 독립형 스프링과 달리, 큰 충격에도 편안하게 불링공을 튕겨내는 하이브리드 Z 스프링의 모습을 통해 '침대는 어떤 충격도 잘 흡수해야 과학이다'라는 결론을 내린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전기 절약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 센스!

한달 전기사용량 24%, 전기요금 32% 절감하는 센스!

<p>안 쓰는 조명 소등</p> <p>10.8 kWh/월</p>	<p>안 쓰는 플러그 뽑기</p> <p>9.6 kWh/월</p>
<p>전기장판 온도 한 단계 낮추기</p> <p>6.7 kWh/월</p>	<p>전기밥솥 보온시간 ↓</p> <p>1.8 kWh/월</p>
<p>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 사용</p> <p>36.2 kWh/월</p>	<p>LED조명 등 고효율 조명 사용하기</p> <p>16.2 kWh/월</p>

전기요금도 줄이고 에너지캐시백도 받자!

| 참여대상

- 개별세대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한전 사업소 방문신청
- 온라인 :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 신청

| 지급액

- 절감률에 따라 30~100원/kWh

4인 가구 월 332kWh 사용 기준 (전기요금 66,590원 기준)				
절감률	요금 절감액	캐시백	절감액	예상요금
10% (34kWh)	8,840원	2,720원	11,560원	55,030원
20% (67kWh)	17,410원	6,700원	24,110원	42,480원
30% (100kWh)	25,990원	10,000원	35,990원	30,600원

QR 코드 스캔

구글, 네이버에 검색

한전 에너지캐시백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KCEM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OMIPO 한국중부발전
KWP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KEA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새마을운동중앙회
에너지시니어
KCEM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협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고맙다, 비트코인”... 가상자산 거래량도 ‘기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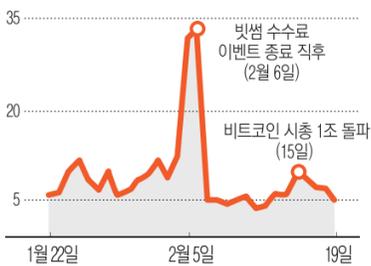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기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다만 거래가 업비트, 빗썸 두 곳에 몰린 데다가, 이용자를 모으기 위해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 중인 곳도 있어 전체 시장의 실익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가상자산 시장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최근 20%가량 급등한 비트코인이 7000만 원선을 사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비트코인 시총 1조 달러를 넘긴 15일 오전 8시 30분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은 28억 7545만 달러를 돌파했다. 1달 전인 20억 333만 달러 대비 43% 급증한 수치다. 같은 시각 거래대금은 17억 4335만 달러를 기록했다. 0.05%인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업비트의 일 수수료 수익은 약 11억 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시각 빗썸은 15일 기준 거래량은 8억 1121만 달러를 보였다. 빗썸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 종료 직후인 6일 24시간 거래량이 5억 달러대로 급락했지만, 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빗썸의 15일 24시간 기준 거래대금은 6억 8763만 달러로, 수수료 이벤트 종료 직후인 5일 대비 약 3배 가량 상승했다.

빗썸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한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중단하고, 이달 5일부터 0.04%의 수수료를 적용을 시작했다. 수수료 0.04%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빗썸은 15일 약 3억 원의 수수료 수

빗썸 가상자산 거래량 (단위: 달러)



업비트 가상자산 거래량 (단위: 달러)



업비트, 한달새 거래량 43% 경증 15일 수수료 수익 11억원 달할 듯 이벤트 종료 이후 주춤했던 빗썸도 거래량 7억달러 턱밑... 빠른 회복

대형거래소 쏠림·무료이벤트 영향 중소형 거래소 수익은 크지 않을 듯

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형 거래소 코인원·고팍스·코빗도 비트코인 가격이 뚝 15-16일 거래량이 급등했다. 코인원은 최근 일주일 간 가장 거래량이 높았던 15일 오후 4시 기준 24시간 거래량이 11일 같은 시각 대비 193% 급증했고, 코빗은 15일 오후 4시 기준 24시간 거래량이 11일 같은 시간 대비 173% 증가했다.

다만 거래량이 업비트와 빗썸에 쏠린

터라 중소형 거래소의 수익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기준 코인힐스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의 거래량은 전체 국내 거래소의 약 97%를 차지한다.

특히 코빗은 이용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10월부터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다. 고팍스는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USDC 등 4대 가상자산의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실적이 좋지 않은 만큼, 수수료 이벤트 종료가 임박했다는 업계의 관측이 나오지만 두 회사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코빗 관계자는 “언젠가 수수료 이벤트를 종료 하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시장 상황과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 중이지만, 당장 이벤트 종료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콘솔 시장 쇠퇴기라는데... K-게임 ‘영토확장’ 통할까

소니, 플스5 판매 전망치 하락 차세대 콘솔기기 출시도 미정 ‘퍼스트 디센던트’ ‘배틀크러쉬’ 게임사 콘솔 야심작 흥행 관심

국내 게임사 콘솔 신작 출시 계획

게임사	게임	시기
넥슨	퍼스트 디센던트	올 여름
엔씨소프트	쓰론엔리버티 글로벌	연내
	배틀크러쉬	상반기
넷마블	일곱개의 대죄:오리진	연말
카카오게임즈	롬(ROM)	2월 27일
크래프톤	인조이	연내

글로벌 콘솔 게임 시장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전망이 나왔다. 콘솔 게임으로 실적반등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국내 게임사들의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소니는 지난주 실적발표를 통해 플레이스테이션5(PS5)이 판매 전망치를 하향했다고 밝혔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기간 PS5 판매 전망치는 종전 2500만 대에서 2100만 대로 줄었다.

마츠오카 나옴이 소니 수석 부사장은 “앞으로 PS5는 수명 주기의 후반부에 접어들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연간 판매 속도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콘솔 기기 판매 부진은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토토키히로키 소니 사장은 “독점작과 콘솔기기 판매 부진이 게임 사업부 경영실적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콘솔 기기 판매 부진 우려는 소니만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콘솔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소니(플레이스테이션)와 마이크로소프트(엑스박스, Xbox)를 향한 우려 목소리가 크다. 두 회사 모두 2020년 이후 선보인 새로운 콘솔은 없다. 이에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도 시작했다. 엑스박스 사업부와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함께 묶여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사업부부는 지난해 12월 직원 2만 2000명 가운데 1900명을 해고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엔더스애널리시스의 가레스 서트클리프 애널리스트는 “게임 산업에는 콘솔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며 “Xbox

를 구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PS5에는 상당한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콘솔이 게임의 성장 모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콘솔을 돌파구로 마련한 K-게임사가 콘솔을 통해 실적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네오위즈의 ‘P의 거짓’과 넥슨의 ‘데이브더다이버’의 큰 성공을 시작으로 올해 게임사들은 다양한 콘솔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엔데믹 여파로 실적이 감소하고, 확률형아이템의 규제가 강화하자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서구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플랫폼인 콘솔을 채택한 것이다.

넥슨은 올해 여름 ‘퍼스트 디센던트’를, 엔씨소프트는 올 상반기 ‘배틀크러쉬’와 연내 ‘쓰론 엔 리버티(TL)’의 글로벌 버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연내 넷마블은 ‘일곱개의대죄:오리진’을 선보일 예정이고, 카카오게임즈는 27일 ‘롬(ROM)’을 내놓는다.

이재홍 게임정책학회 회장(숭실대학교 교수)은 콘솔 기기 판매 부진을 두고 “획기적인 IP가 부족해 유저들이 권태감을 느끼게 되고, 여기에 최근 글로벌 경제의 좋지 않은 흐름 등이 더해져 복합적으로 세계 콘솔 시장의 침체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계 콘솔 시장이 침체를 겪더라도, 글로벌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과감하고 참신한 IP를 콘솔 시장에 출시한다면 오히려 국내 게임사들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유진 기자 newjean@

〈실물연계자산〉

아발란체 “RWA, 글로벌 금융기관 참여 이어질 것”

쟁글 블록체인 파운데이션 위크

“현실세계 모든 자산 토큰화” 채권 발행규모 1년새 8배 속 연내 상용화 프로젝트 기대



저스틴 김(왼쪽부터) 아발란체 한국 대표와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선임매니저, 김종완 미래에셋 선임매니저가 19일 서울시 강남구 ADM SPACE에서 열린 '쟁글 블록체인 파운데이션 위크'에 참석해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실물연계자산(RWA)은 지난해 이어 올해 블록체인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프로젝트 중 하나다. 아발란체는 지난해 7월 RWA 기술에 5000만 달러를 투자하며, RWA를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점찍었다.

아발란체는 19일 서울시 강남구 ADM SPACE에서 진행된 ‘쟁글 블록체인 파운데이션 위크’에서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진화:RWA’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저스틴 김 아발란체 한국 대표,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선임매니저, 김종완 미래에셋 선임매니저 등이 함께 했다.

RWA는 실물 자산이라는 뜻으로 증권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 모든 자산을 토큰화해 블록체인에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RWA는 STO(토큰증권)와 비슷하지만, 증권으로 인정되는 자산만 외에 모든 자산을 토큰화했다는 점에서 좀 더 포괄적이다.

이용재 매니저는 “RWA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토큰화해서 소유권이나 각종 청구권 등을 포장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RWA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지난해

부터 집중되기 시작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 발행한 자본시장포커스에서 맹주희 연구원은 “지난해 1월 RWA에서 토큰채권 전체 발행 규모는 1억달러 수준이었으나, 올해 1월 기준 8억6200만 달러로 약 8배 성장했다”고 언급했다.

김종완 매니저는 “지난해 여러 가지 토큰화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펀드 토큰화가 PoC(개념증명) 진행됐고, 글로벌 대형 사모펀드들이 펀드를 토큰화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JP모건의 블록체인 플랫폼 오픈스과와 글로벌 사모펀드 아폴로글로벌은 아발란체를 기반으로 자산 토큰화 PoC에 나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용재 매니저는 “해외 금융기관들도 자산 토큰에 관심이 많아서 미래에셋 같은 경우 글로벌 파트너십도 많이 맺었다”며 “올해는 더 구체적인 사업 협력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측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김 매니저는 “지난해의 경우 PoC들이 정부 샌드박스하에서 진행됐는데 올해는 하나씩 상용화가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며 “개념 증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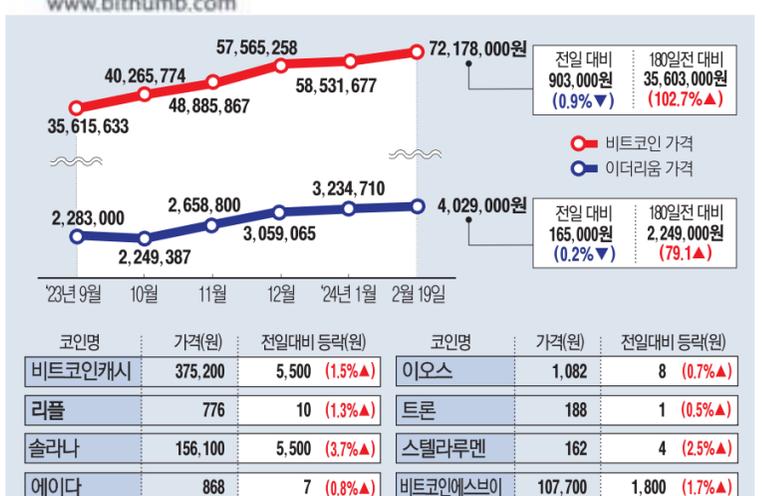
이어 “올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이 예정돼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국내 증권사들도 실질적으로 증권을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져 기대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못했다.

글·사친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4년 2월 19일 17:00, KST)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큐로셀 “꿈의 항암제 CAR-T... 글로벌시장 데뷔 임박”

상장 새내기
바이오기업을 찾아서 ①

인터뷰

김건수 큐로셀 대표

“기존 바이오기업이 보여주지 못했던 임상 성공 성과를 우리가 보여주겠습니다. 큐로셀은 글로벌 면역세포치료제 시장에서 인식되는 첫 번째 한국 기업이 될 것입니다.”

‘꿈의 항암제’라 불리는 CAR-T(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치료제 국산화가 임박했다. 큐로셀은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임상을 시작한 바이오기업이다. 최근 대전 유성구 본사에서 만난 김건수 큐로셀 대표의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했다.

CAR-T 치료제는 환자 혈액에서 분리한 면역세포인 T세포를 유전적으로 조작해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원을 발현시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도록 한 세포유전자치료제다. 대량배양 과정 후 환자에게 재투여하는 방식이다. 1회 투여만으로 치료 방법이 없는 말기 혈액암 환자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안발셀’ 상임화 초읽기...9월 신약허가 신청=김 대표는 LG생명과학(현 LG화학 생명과학사업부)과 차바이오텍 등을 거쳐 2016년 12월 큐로셀을 설립했다. 핵심 파이프라인은 2019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CD19 CAR-T 치료제 ‘안발셀(Anbal-cel)’이다.

회사에 따르면 안발셀은 큐로셀의 OVIS™기술을 적용해 두 종류의 면역관문수용체 PD-1(활성화된 T세포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과 TIGIT(T세포의 공격을 중지시켜 체내 면역 체계를 회피하도록 암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수용체)의 발



큐로셀 기업 개요

설립일	2016년 12월 1일	본사	대전 유성구
상장일	2023년 11월 9일	사업분야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임직원 수	106명	주요 파이프라인	안발셀(CAR-T치료제)

김건수 대표는

연세대 생명공학과 석사

- 2000~2004년 한화석유화학 중앙연구소
- 2015~2017년 차바이오텍
- 2004~2014년 LG생명과학(현 LG화학)
- 2017~현재 큐로셀 대표이사

김건수 큐로셀 대표가 최근 대전 유성구 큐로셀 본사에서 본지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전에 위치한 큐로셀 본사. 사진제공 큐로셀

현이 현저하게 낮았다. OVIS™기술은 한번의 유전자 조작으로 △CAR 발현 △PD-1 제거 △TIGIT 제거의 3가지 기능을 동시에 실현한다.

안발셀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세포림프종 환자 41명을 대상으로 확인한 임상 2상 중간결과에서 완전관해율(CRR) 71%를 달성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CAR-T 치료제 3종(40~50%대)에 비해 향상된 치료 효과를 보였다.

큐로셀은 지난해 10월 임상 2상 마지막

안발셀 9월 신약허가 신청 계획 임상 2상 6월 공개... 결과 자신 시판 가능해지면 전량 직접생산 연간 700명분 만들 수 있어 흑자전환 시점 2026년 예상

환자 투약을 완료했다. 투약 3개월이 지나면 최종결과 취합이 가능하다. 김 대표는 “임상 2상 최종 결과는 올해 6월 스페인에서 열리는 유럽혈액학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중간결과가 워낙 뛰어나 최종 결과에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안발셀 상임화는 목표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큐로셀은 2021년 2월 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이듬해 1상을 완료했고, 임상 2상에 들어가 지난해 10월 투약을 마쳤다. 올해 9월 식약처에 신약허가

를 신청할 계획으로, 내년 허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김 대표는 “이 약을 기다리는 국내 환자들을 생각하면 계획한 일정을 늦춰선 안된단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직접 생산, 독보적 신약 지위 강점=김 대표는 “신약이 사업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독보적인 지위”라고 했다. 보통 시판의약품 수명은 특히 기간이 만료되면 서 끝나지만, 복제할 수 없는 CAR-T 치료제는 예외란 것이다.

안발셀 시판이 가능해지면 큐로셀은 전량 직접 생산한다. 본사와 나란히 위치한 GMP(우수 의약품 제조관리기준) 상업용 CAR-T 제조시설은 국내 최대인 1만636㎡ 규모로, 연간 700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안발셀을 만들 수 있다.

김 대표는 안발셀 임상 착수와 동시에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 임상 속도를 고려하면 착공을 빨리 들어가야겠다는 계산이

나왔고,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김 대표는 “보통은 건물을 짓고 설비를 들이지만 우리는 동시에 진행해 속도를 단축했다”며 “1개 층만 사용해도 700명 분을 생산할 수 있고, 별도 1개 층의 잉여공간이 있다”라고 소개했다.

큐로셀은 대전 GMP를 통한 위탁생산·위탁개발생산(CMO·CDMO) 가능성도 열어뒀다. 현재 안발셀의 상업화에 전력을 쏟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면역세포치료제 허브로 키우는 것이 목표다.

◇‘말만 앞선 바이오기업 아냐’=큐로셀은 지난해 11월 9일 코스닥시장에 입성, 최근 상장 100일을 넘겼다. 얼어붙은 바이오 투자 시장 영향에 공모가는 희망범위(2만9800원~3만3500원)를 밑도는 2만원으로 확정됐다. 기대보다 아쉬움이 남는 숫자다. 김 대표는 “(상장 후) 회사에 대한 외부관심도가 확실히 커지고 다양해졌다. 많은 기업이 상장 과정에서 가치(밸류에이션) 하락을 겪지만, 큐로셀 가치에 의의를 제기한 곳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총 공모 금액은 320억 원으로 안발셀 상업화와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김 대표는 “공모자금이 계획보다는 적지만 내실을 다지는 운영으로 안발셀의 매출 시점까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금은 안발셀에 초점을 맞춰 매출을 끌어내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판하면 흑자전환 시점은 2026년으로 본다. 또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후속 파이프라인은 자기면역질환인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다. 올해 하반기 IND를 신청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제 바이오 투자 시장은 그저 그런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회사의 가치를 높일 모멘텀을 큐로셀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대전=유혜은 기자 euna@

식약처 “AI 활용 혁신·마약류 차단 강화”

수입식품 전자심사 품목 확대 등 디지털 전환 가속... 업무효율 ↑ 마약 예방 각 부처와 공조 확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19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수 의료제품 안정적 공급,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접목한 식·의약품 정책 혁신, 마약류 오남용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9일 오송 청사에서 열린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수요가 지속적인 필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선한다. 신속심사, 원료 단독 우선심사로 필수약품의 빠른 제품화를 지원한다. 또 필수의료기기 개념 정립과 신속심사, 허가심사 자료를 우선 심사할 수 있는 단계별 심사 적용 등 공급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제품 안전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청각장애 인들을 위해 상비약품 등 39품목의 의약품과 생리용품 등 15품목의 의약품 허가정보 등을 점자 또는 음성·수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도 방점이 찍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마약류 오남용 정보를 연계해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재활과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총 3개소가 설치된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6월부터는 의료인이 처방 이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부터 우선 적용 후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국정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의 식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을 넘어 세계의 식의약품 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 마약류 차단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도 방점이 찍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마약류 오남용 정보를 연계해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재활과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총 3개소가 설치된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6월부터는 의료인이 처방 이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부터 우선 적용 후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성주 기자 hsj@

리바로젯 누적 매출 1000억 돌파

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JW중외제약은 이상지질혈증 복합성분 개량신약 ‘리바로젯’(사진)이 2021년 10월 출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만에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리바로젯은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는 성분인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2제 복합제다. 스타틴 제제 중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조합한 국내 첫 개량신약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UBIST)에 따르면 리바로젯은 출시 직후 2022년 31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엔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704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월 6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스타틴-에제티미브 2제 복합제 시장 3위로 올라섰다. 올해 1월 기준 누적 매출은 1111억 원이다.

리바로젯은 저밀도 지단백(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 54% 줄일 수 있는 리바로젯의 약효뿐만 아니라 최근 스타틴의 혈당 상승 부작용에 따른 당뇨병 발생 이슈로부터 안전한 근거가 축적돼 의료현장

에서 인정받고 있다. 피타바스타틴 단일제 ‘리바로’의 글로벌 32개국 의약품설명서에는 ‘당뇨병 발생 위험 징후 없음’ 문구가 삽입돼 있다. 이는 스타틴 계열 중 유일하다.

지나해에는 일반인보다 심혈관질환 사건의 약 50%가량 더 많이 발생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동반 심혈관질환 1차 예방환자를 대상으로 피타바스타틴의 약효를 검증한 첫 연구가 국제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게재됐다.

연구결과 피타바스타틴을 복용한 환자군의 심혈관 사건 발생이 대조군보다 35% 유의하게 낮았다. 또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를 동반한 환자는 면역억제제 복용 시 약물상호작용을 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타바스타틴은 대사경로가 겹치지 않아 약물상호작용에서도 유리하다는 이점을 확인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신탁사 번진 '건설채 한파'... 한토신 회사채 대거 미매각

〈한국토지신탁〉

총 1000억 발행 수요 예측서
기관 매수 주문 380억에 그쳐
수익성 악화 속 신용등급 강등
'책임준공 협약' 부메랑 지적도
최근 일부 건설사 회사채 '훈풍'
"리스크 따라 옥석 가리기" 분석

국내 부동산 신탁사 중 가장 우수한 자본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토지신탁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대거 미매각 사태를 빚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수익성 하락과 더불어 신탁사의 책임준공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면서, 연내 자금 조달에 나선 기업들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 관리 역량에 따른

양극화 양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14일 총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총 38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는 데 그쳤다. 2년물 700억 원, 3년물 300억 원으로 구성했는데 이 중 2년 물에서 미매각이 발생했다. 희망 금리밴드는 -30bp(1bp=0.01%포인트)~+70bp로, 개별 민영금리(민간채권평가사들이 평가한 기업의 고유금리) 보다 넓게 제시했음에도 모집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해 국내 14개 부동산신탁사 중 영업수익 1871억 원으로 전체 2위에 오른 기업이다. 하지만 최근 신용등급강등과 수익성악화의 영향으로 회사채 시장에서 외면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회사채 발행 직전인 이달 6일

한국신용평가는 한국토지신탁의 신용등급을 기존 A(부정적)에서 A-(안정적)로 한 단계 낮췄다. 수주 실적감소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고, 이익창출력이 저하된 점이 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 신평은 설명했다.

수익성도 부진하다. 한국토지신탁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414억 원으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영업수익 기준 시장점유율도 2018년 21%에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0%로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부실자산 규모 역시 신탁사 14곳 중 몸집을 가장 많이 불렀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신탁사들이 부동산 활황기 대량 판매했던 '책임준공 협약'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탁사는 인허가, 시공, 분양 등 부동산 개발사업 전반을 대신 맡아 서비스

를 제공하는 일종의 '부동산 전문 서비스 업체'다. 책임준공형관리신탁(책임준공형)은 신탁사의 보증으로 부동산 PF를 일으켜 사업비를 조달한다. 이후 시공사가 채무불이행 등에 빠져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신탁사가 채무를 이행하고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하는 일종의 '보험' 성격을 띤다.

이는 주택사업 호황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최근처럼 공사비 급등, 금리 상승 등으로 건설사들의 유동성이 악화할 경우 신탁사가 준공 책임을 떠맡는 리스크가 커진다. 황규안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팀장은 "신탁업계는 그간 책임준공 협약 상품을 많이 판매했는데, 최근 공사비가 최초 계약 대비 30% 가량 오르는 등 문제가 생기면서 신탁사가 이를 전부 매워야 하는 구조가 됐다"며 "신탁사의 비즈니스

영역이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으로 흘러가면서 각 사마다 책임준공 관련 문제가 본격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근 건설채 발행에 나선 현대건설,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는 모집 금액 이상의 매수 주문을 받아내며 건설채에 대한 우려를 한 걸 덜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각 사별 리스크 대응 역량에 따라 회사채 시장에서 울고 웃는 '옥석 가리기'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KIF) 선임연구원은 "결국 거시여건과 맞물릴 텐데,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회사채 시장에 자금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본다. 회사채 발행 측면에선 건설업종 전체보다 기업별 리스크 정도에 따라 다른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강남 아파트 월세 '100만원 이상'이 절반 넘어

'노도강'도 50만~100만원 54%

서울 아파트 고가 월세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주거 수요가 모여 있는 강남 지역은 월세 1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가액대별로 분석해 아파트 고가 월세 시장 흐름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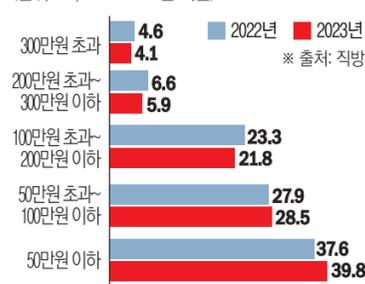
2023년 전국 아파트 월세 거래를 가액대별로 살펴보면 월세 50만 원 이하가 51.5%로 절반을 넘어섰다. 2022년 54.2%에 비해 2.6%포인트(p) 감소했으나

나 여전히 전체 거래의 과반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고가 월세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는 뚜렷했다. 100만 원 초과 거래 비중은 2023년 17.2%로 2022년(16.4%)보다 0.9%p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 10채 중 약 2채는 100만 원 초과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10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인 비중도 2023년 14.2%로 전년보다 0.7%p 증가했다.

임대료 부담이 지방에 비해 큰 서울은 100만 원 초과 아파트 월세 거래 증가세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학군(교육) 및 고급 주거 수요가 밀집한 강남권은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가액대별 비중
(단위: %, 2022~2023년 기준)



2023년 100만 원 초과 고가 월세 거래 비중이 무려 51.5%로 이미 과반을 넘겼다. 같은 기간 노원, 도봉, 강북 등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월세 시장은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 월세 거래가 2023년 53.9%로 절반을 넘겨, 2022년 48.5%보다 5.3%p 증가했다.
허지은 기자 hje@

공사비에 발목 잡힌 시공사 선정 송파·서초 재건축도 잇따라 유찰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 등 주요 정비사업장도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2~3년 새 급증한 공사비 탓에 조합과 건설사의 가격 눈높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사업 진행이 지연되면 향후 주택공급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송파동 가락삼익맨션 재건축조합이 최근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파구 잠실우성 4차 재건축은 2차 입찰까지 진행했지만,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공사비를 3.3㎡당 760만 원에서 810만 원으로 올릴 예정이고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7차는 907만 원의 공사비에도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중구 신당9구역은 3.3㎡당 공사비를 742만 원에서 840만 원까지 올렸지만, 시공사 선정 입찰이 세 차례 유찰됐다. 동작구 노량진 1구역 재개발은 최근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에 포스코이앤씨만 참여했다. 이곳은 명회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8개 건설사가 참석했지만, 정작 수주전에는 뛰어들지 않은 것이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설명회 이후 입찰 참여

의향서를 냈다가 마감을 앞두고 철회했다.

기존 936가구를 1531가구 규모로 재건축할 가락삼익맨션은 서울 지하철 3·5호선 오금역과 방이역을 걸쳐서 이동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 입지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락삼익맨션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된 것은 공사비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급등한 공사비를 생각하면 3.3㎡당 일반 브랜드는 800만 원 안팎, 하이엔드 브랜드는 900만~1000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며 "가락삼익맨션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락삼익맨션 조합은 하이엔드 브랜드를 요구하면서 3.3㎡당 809만 원의 공사비를 제시했다.

가락삼익맨션뿐 아니라 서울에서 여러 단지가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파구 잠실우성 4차 재건축은 2차 입찰까지 진행했지만,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공사비를 3.3㎡당 760만 원에서 810만 원으로 올릴 예정이고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7차는 907만 원의 공사비에도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중구 신당9구역은 3.3㎡당 공사비를 742만 원에서 840만 원까지 올렸지만, 시공사 선정 입찰이 세 차례 유찰됐다. 동작구 노량진 1구역 재개발은 최근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에 포스코이앤씨만 참여했다. 이곳은 명회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8개 건설사가 참석했지만, 정작 수주전에는 뛰어들지 않은 것이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설명회 이후 입찰 참여

의향서를 냈다가 마감을 앞두고 철회했다.
물론이고 경쟁 상황까지 까다롭게 따질 수밖에 없다"며 "대체로 어느 정도 이익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주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 지금과 같은 흐름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더 내는 게 쉽지 않고 건설사도 원가 부담을 홀로 떠안을 수 없다는 점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앞으로 3~5년 후 서울 주요 지역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 가격 왜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원자재 상승 등에 따른 실질 공사비 변동을 파악할 객관적 근거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보규 기자 jbk@

"협력사와 손잡고 초일류기업 동행"

현대건설 'H-리더스' 총회

현대건설이 협력사 기술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동행을 지속한다.

현대건설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H-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16일 진행된 행사에는 운영진 현대건설 사장과 주요 경영진을 비롯해 242개 협력사 대표가 참석했다.

H-Leaders는 현대건설에 등록된 외주·구매 2000여 개 협력사 중 안전·품질·공정·기술 등 부문별로 엄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한 우수협력사다. 올해는 242개사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부문별 최상



운영진(오른쪽 세 번째) 현대건설 사장과 안전·품질·공정·기술 등 각 부문 우수 협력사 대표들이 'H-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건설

위 평가를 받은 44개 기업을 H-Prime Leaders로 위촉해 인증서와 기념패를 전달했다.

윤 사장은 "원자재 등 초격차 기술 기반의 핵심사업과 고부가가치 사업 위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에너지 밸류체인

확대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협력사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서로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시장 개척과 신사업 발굴로 초일류 기업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

SGC이테크건설, 사우디서 2500억 IPA 생산 설비 수주

SGC이테크건설이 사우디서 대형 프로젝트 EPC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SGC이테크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법인 'APOC'로부터 약 2500억 원 규모의 'IPA(아이소프로필 알코올)' 생산 설비를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월 6900억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화학 플랜트 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한 지 한

달 만이다.

해당 설비는 사우디 주바이-2 산업단지 에 설립되며, 연간 7만 톤의 IPA를 생산한다. SGC이테크건설은 설계, 구매, 시공 등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수행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2개월이다.

SGC이테크건설은 여러 사업주로부터

입찰 참여 요청을 받아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동 시장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로, 주요 사업주가 직접 SGC이테크 건설 본사에 방문해 신규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의논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부회장은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우량 수주 확보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2024 커리어의 시작

디지털 혁신은 당신으로부터, KT와 함께

대한민국 통신과 IT 산업을 이끌어온 KT가
보다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갈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 1차: 2024년 2월 16일(금) ~ 3월 3일(일) ※ 연중 수시 공고 오픈 예정

[모집 분야] AI, Cloud, Data, IT

[주요 직무] 솔루션 아키텍트, 플랫폼 엔지니어, SW개발, 분석/설계,
IT프로젝트 PM/PL, IT컨설팅, IT기술영업/제안 및 수행

[모집 인원] 사원급부터 임원급까지 전 직급 대상 최대 1,000명 규모

[접수 방법] KT 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kt.com>) 온라인 지원



채용 정보 보기

고금리 카드론 빠진 '2금융권 이자 캐시백'... "실효성 낮다"

내달부터 소상공인 이자환급
최대 1억 이자납부액 1년치 환급
소상공인 1인당 75만원 돌려받아
취약계층 지원책 없어 불만 커져
카드업계 "카드론 포함땀 악영향"

대상	총지원액	금리	대출종류	지원내용	신청방법
1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한 소상공인·자영업자(약 187만명)	약 1조6000억원 1인당 평균 80만원	4%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환급	별도 신청 절차 없음
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한 소상공인·자영업자(약 40만명)	약 3000억원 1인당 평균 75만원	5~7%	개인사업자 대출 법인 소기업 대출	이자환급	별도 신청 필요

정부가 민생금융 지원방안에서 배제됐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하는 가운데 환급 대상이 개인 사업자 대출 차주에 한정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금리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다음 달 29일부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 2금융권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해 최대 1억 원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 치를 환급해준다.

정부는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의 캐시백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 기준 약 24만 명의 소상공인이 1인당 평균 75만 원가량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금리 부담 완화 대책이 소상공인에게만 집중돼 급여소득자를 포함한 일반 취약계층의 박탈감이 커질 것이라 지적도 제기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준비한 상생금융 방안이 사실상 소상공인만을 집중지원하며 나머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하다는 비판이다. 경기둔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어려운 것이 아닌데 굳이 이들에게만 지원책을 내놨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금리 상품인 카드론이 이자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NH농협)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3.33~14.98%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이자환급이 기본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가계) 대출 상품인 카드론은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가계 대출 역시 개인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 카드론도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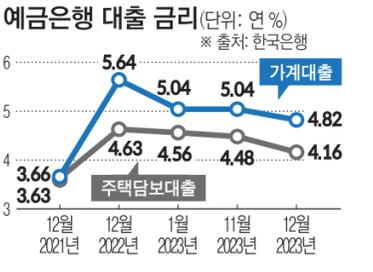
다.
한편, 카드업계 내부에선 카드론이 이자 환급에 포함될 경우 건전성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조달비용 증가와 건전성 악화로 카드사들이 유동성 악화를 겪는 가운데 이자환급 대상에 카드론이 포함되면 장기적으로 카드사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2금융권의 이자 캐시백은 역대급 이자 수익을 냈던 은행권의 캐시백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자 환급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 효과가 계속해서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로서 활용될지는 의문"이라며 "현재 카드사들의 조달 비용이 높아진 상황에서 카드론을 캐시백에 포함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은 내달 18일부터 가능하다. 1년 치 환급액이 한 번에 지급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정성원 기자 jsw@

금리인하 기대 속 "대출은 언제..." 고민 깊어진 '결정장애' 예비차주

금융 인사이트 #주택 구입을 준비 중인 직장인 A 씨는 고민에 빠졌다. 이번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의사록 공개,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대출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다. A씨는 "대출을 받고 갈아타려면 환승 조건이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담대 금리 2022년 7월後 최저
美 기준금리도 2분기 인하 전망
"과거 최저금리는 기대 말아야"

2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예비 차주들이 대출 실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당장 금리가 내려가지 않더라도 은행권의 비대면 대출 시작과 2분기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이 기정사실화하는 등 금리 인하 요인이 많은 데다 주택담보대출 산정기준인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은행채 금리도 하락세인 탓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연 3.5%로 9연속 동결할 것이라 관측이 우세하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고 국내 경기도 수출을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는 만큼 급하게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고 있는 것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로 꼽힌다. 22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FOMC 의사록 공개도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글로벌 IB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작 시점이 올해 2분기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이 2분기 선(先)인하하면 한은이 3분기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으로 평가되면서 국내 금리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이 시행한 비대면 대출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코픽스와 은행채 금리는 동반 하락 중이다. 지난해 12월 주담대 금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2022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리인하 기대에 은행채 등 국내 시장 금리가 낮아진 영향이다. 한은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3년 12월 금융기관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주담대 금리는 연 4.16%였다. 2022년 7월 연 4.16% 이후 최저치다. 시장금리도 내림세다. 지난해 말 3.842%던 6개월 만기 은행채(무보증·AAA) 금리는 지난달 말 3.655%까지 떨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2분기 미국의 기준금리와 3분기 국내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가계대출 금리는 더 떨어질 것"이라면서 "그 수준이 과거의 최저금리 수준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수요 중심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연체율 6% '위기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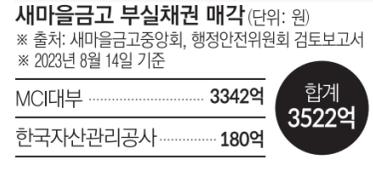
이달 말 검사협의체 MOU 앞서
금고 관리 현황 사전 점검 실시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달 중금고 건전성 점검회의를 갖는다.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대까지 치솟은 데 따른 것이다.

19일 금융당국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이달 중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중앙회 등 정부부처와 새마을금고 관계기관이 모여 금고의 건전성 관리 현황을 사전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2월 말 예정인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중앙회 간 검사협의체 구성 업무협약(MOU)에 앞서 금고 관리 현황을 살피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올 들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탓이다. 금융권과 중앙회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체율은 지난해 말 5%대에서 1%포인트(p)가량 오른 6% 수준이다. 2021년 말 1.93%, 2022년 말 3.59%에서 지난해 5월 6.19%로 급등한 이후 같은 해 6월 말 5.41%로



락했으나 다시 오름 추세로 전환했다.

이달 5일 행안부와 금융위가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감원, 예보, 중앙회로 구성된 검사협의체 협약은 다음 주 맺을 예정이다. 협약 체결 이후 이르면 다음 달 건전성 지표가 좋지 않은 금고에 대한 금감원, 예보공사 등의 첫 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앙회는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조 원 상당의 부실채권 추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회와 캠코는 현재 매각가 산정, 매각 방

법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행안부와 금융당국, 중앙회 등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방안 중 하나로 지난해 하반기 최대 3조 원 규모를 목표로 금고의 연체채권을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규모는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 대부에 최대 1조 원, 캠코에 최대 2조 원이다.

다만,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캠코는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권의 위기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매입 가능 규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MCI대부도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 지난해 상반기 기준 10조 원이 넘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모두 소화할 수 없다.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캠코와 MCI대부가 매입한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은 누적 3522억 원에 불과했다. 중앙회에서 대안으로 내세우는 자체 '금고자산관리회사(MG자산관리)' 설립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행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유혜영 기자 haha@

진옥동의 야심작 '미래형 디지털뱅킹' 완료

신한銀 '더넥스트 프로젝트' 마무리
소영업점 적용... 5월까지 후속작업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신한은행은 관련 후속 작업을 5월까지 마무리해 더넥스트 프로젝트 3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이 2021년부터 추진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더넥스트(The NEXT)' 구축 프로젝트를 3년 만에 마무리한다.

신한은행은 차세대뱅킹시스템 전환 프로젝트 '더넥스트'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로 차세대 시스템의 전국 영업점 적용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더넥스트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장이던 2021년 초부터 미래형 디지털뱅킹 시스템 전환을 목적으로 추진해온 3000억 원 규모 대형 프로젝트다. 고객에게 더욱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의 서비스 응답속도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비대면 채널 전반적으로 안정성 및 서비스 확장성을 개선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더넥스트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업계 최초로 '단계적·점진적' 도입 방식을 사용했다. 단계적 도입 방식을 적용한 덕분에 시스템의 중단 사례 없이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김범근 기자 nova@

DB손보, 윈스톱 인수심사 'AI비서 시스템' 특허 획득

DB손해보험이 장기보험 설계 및 인수심사 업무와 관련해 빅데이터 기반의 고객 맞춤형 설계와 사전 인수심사를 윈스톱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AI)비서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AI를 통해 고객별 보장분석, 맞춤형 설계, 사전심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영업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AI비서는 정보이용에 동의한 고객에 대해 설계사나 지점장이 신청하면 자동으로 설계번호를 생성, AI가 기존 가입내용을 보장 분석해 가입 설계내용을 정하는 시스템이다. 사고정보 등을 확보해 인수심사를 미리 수행하며 그 결과를 제공한다. 정성원 기자 jsw@

外人 'Buy 코스피200'에... 지수형 ETF 웃었다

'밸류업' 기대에 코스피 활기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느니 건초 더미를 통째로 사는 게 낫다."

일부 종목은 사는 것보다 전 종목을 담는 게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라는 뜻이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기대감에 코스피가 2700선을 바라보며 건초 더미를 '다발'로 사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19일 코스피는 1.19% 오른 2680.26에 마감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외국인 기관의 매수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이달 들어 각각 6조7000억원, 1조5000억원 순매수했다. 증권가에선 국내 대표 상장사들이 주주 가치를 제고할 경우 주가가 크게 오를 거라는 모의결과가 나오는 등 코스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6일 기준 KODEX

이달 들어 외국인 6.7兆 '사자'

코스피200 20거래일째 담아

코텍스200ETF 순자산 6.9兆

지수 추종 상품 5%대 수익률

저PBR 거론되는 대형주 집중

2월 현대차 1.5兆 순매수 1위

200 ETF 순자산총액은 6조8981억 원을 기록했다. 2월 들어 3956억 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TIGER 200 ETF(2조1964억 원→2조2944억 원)와 KBSTAR 200 ETF(1조3488억 원→1조3932억 원)도 980억원, 444억원씩 늘었다. ARIRANG 200, ACE 200 ETF 순자산총액도 각각 232억 원과 159억 원 늘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들 코스피200 지수 ETF의 수익률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KODEX 200(5.65%) △TIGER 200(5.56%) △KBSTAR 200(5.69%) △ARIRANG 200(5.60%) △ACE 200(5.37%) 등으로 대체로 5%대 중반대 오름세를 기록했다. 코스피 200 지수 등락률인 5.73%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다.

지수형 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해당 상품 수익률이 오른 배경에는 코스피 대표 종목으로 이름을 올린 저PBR주 강세가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구상을 밝힌 뒤 저PBR 수혜 분야 종목은 코스피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자동차, 금융, 보험, 지주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달 들어 현대자동차는 29.75% 치솟았고 KB금융은 21.55% 뛰었다. 삼성물산(23.48%), 하나금융지주(23.22%), 삼성생명(22.66%), 미래에셋증권(14.61%) 등도 강세였다.

판을 주도한 것은 외국인이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2월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은 현대차였다. 순매수 규모는 1조5000억 원으로 전체 순매수액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

다. 외국인 매수세는 대형주에 집중됐다. 외국인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20거래일 연속 코스피 200을 순매수했다. 2014년 5월 13일~6월 12일(21거래일) 이후 약 10년 만에 최장 매수다.

강승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월 이후 외국인 코스피 매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와 성격이 달라졌는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삼성전자 순매수 비중이 크게 줄어든 반면 현대차와 기아, KB금융, 하나금융 등 저PBR 기업으로 거론되는 종목의 순매수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강렬했고 특히 외국인 수급이 크게 움직였다"고 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

정희인 기자 hihello@

‘조카의 난’ 재점화한 금호석화 ‘52주 신고가’

차파트너스-박철완 前상무 협력
자사주 전망소각 주주제안 제기
정부 '밸류업 정책' 무시 못할 듯

경영권 분쟁의 소용돌이가 돌아치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이 장종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호석유는 전 거래일 대비 4.06% 오른 16만 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바닥을 치던 지난 1월 23일 장종 52주 신고가(10만 7800원)에 비해 무려 50%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8.76%) 보다 크게 올랐다.

이달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발표를 앞두고 PBR이 0.92배로 저PBR주에 속하는 금호석유화학이 영향을 받은 데다 15일 금호석유화학 개인 기준 최대주주(지분율 9.10%)인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차파트너스를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인으로 추가하면서 상승세가 더욱 커졌다.

이날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화학 지분 0.03%를 확보하고 박 전 상무로부터

금호석유화학 주가 (단위: 원)



터 권리를 위임받아 지난주 금호석유화학에 주주제안을 제기했다. 차파트너스는 전체 지분의 18.4%에 이르는 자사주를 전망 소각하라고 주주 제안하며 회사 압박에 나섰다.

자사주 자체는 의견권이 없지만, 백기사에 매각할 경우 의견권이 살아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21년 말 금호석유화학은 OCI와 자사주를 상호교환하면서 경영권을 방어한 사례도 있다.

현재 지분은 2021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박 전 상무는 누나들(박은형·은경·은혜)과 어머니 김형일(0.1%), 장인 허경수(0.1%), 차파트너스(0.03%) 등 총 10.8%다. 박찬구 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 장남인 박준경 사장과 장녀

인 박주형 부사장 등을 모두 더하면 15.7%로, 두 그룹간 지분 차이는 약 4.9% 수준이다. 결국, 25%가 넘는 소액주주와 20%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 등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2021년 경영권 분쟁과 다른 점도 있다. 올해 증시 특이점으로 떠오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이 이번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자사주 비중이 높고 PBR이 작년 3분기 기준 0.58배, 주가가 크게 오른 지금도 1배에 미치지 못하면서 박 전 상무 측의 주주환원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박준경 사장 경영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매출,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20%, 68%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이익은 처참한 수준이다. 2021년 2조4000억 원이 넘었으나 2022년 1조1400억 원, 지난해엔 3500억 원으로 2년 연속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여기에 경영권 분쟁까지 겹치면서 박 사장 등 회사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눈초리는 어느 때보다 매섭다. 박상인 기자 si2020@

신영 Art-Up 장학증서 수여식



신영증권, 한예중 학생 후원 '아트업 장학증서 수여식' 신영증권은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신영 아트업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행사는 신영증권이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운영하는 신영컬처챌린지, 신영컬처드림업, 신영뉴프론티어 총 세 가지 장학사업을 결산하는 자리다. 황성업(뒷줄 왼쪽 첫 번째) 신영증권 대표이사과 배동진(뒷줄 왼쪽 두 번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신영 아트업 장학증서' 수상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신영증권

네이버웹툰, 이르면 6월 美증시 상장

기업가치 최대 5.3兆 추산

네이버웹툰이 이르면 올해 6월 미국 증시에서 기업공개(IPO)에 나설 전망이다. 1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네이버가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해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북미에 설립한 네이버웹툰의 본사다. 상장 시기는 이르면 올해 6월을 목표로 잡고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는 30억~40억 달러

(약 4조65억~5조3420억 원)로 추산되며, 이번 상장을 통해 최대 5억 달러를 조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네이버웹툰의 미국 증시 상장 가능성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거론돼왔다. 네이버웹툰은 북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2020년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었다.

이듬해 박상진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상장 가능성을 언급했고, 지난해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직접 2024년 미국 상장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IPO 대항행에 '뽑기' 전략한 균등 배정 제도

최근 투자자 몰리며 경쟁률 치열
에이피알 인당 0.06주 취지무색

"비례 1주 증거금이 2억~3억 원대라는 말을 듣고 마음을 비웠었다.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다" 균등 배정 방식으로 에이피알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으나 배정 받지 못한 직장인 A 씨의 하소연이다.

공모주 청약에 도입된 '균등 배정 제도'가 사실상 '뽑기'로 전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균등 배정 제도가 무색해지자 비례 배정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대출까지 동원하는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균등 배정 제도는 투자금이 적어도 투자자들이 한 주씩은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

로 도입됐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 청약은 최소 청약 주식 수(10주)에 증거금 50%를 적용해, 공모가 25만 원 기준 125만 원을 넣어야 응모할 수 있었다. 에이피알에다수의 투자자가 몰리면서 균등 배정 주식 수는 0.06주로 줄었다. 1주를 받는 투자자가 17명당 1명꼴이다.

13~14일 공모주 청약에 진행한 코셈, 이에이트, 케이웨더 등의 균등 배정 주식 수는 0.18주, 0.92주, 0.28주 수준으로 집계됐다.

2021년 도입된 균등 배정 제도는 고액 자산가에게만 공모주 청약이 유리하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도입했다. 하지만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는 등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례 배정도 돈 잔치다. 1주를 받기 위한 증거금은 코셈이 6400만 원대, 케이웨더가 1400만 원대, 이에이트가 700만 원대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돈이 몰린 에이피알의 경우 비례 1주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무려 2억8000만 원(신한투자증권), 2억3000만 원(하나증권)의 증거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주 균등 배정 경쟁률 격화와 비례 배정 자금 쏠림 현상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공모주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한 몫 챙겨보자' 식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개미 홀린 KB운용 '美국채30년 엔화노출 ETF'

출시 7주 만에 개인 순매수 510억

KB자산운용은 15일 기준 'KBSTAR 미국채30년 엔화노출(합성H) 상장지수 펀드(ETF)' 개인 순매수 규모가 510억 원

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상품 출시 이후 총 33영업일 동안 지난달 12일 하루를 제외하고 22일 연속 개인 순매수가 이어졌다. 'KBSTAR 미국채30년 엔화노출(합

성H) ETF'는 미국채 30년물 투자에 따른 자본차익과 엔화 가치 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이다. 추후 미국 금리 인하와 엔화 가치 상승에 베풀하는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찾는 상품이다.

김찬영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KBSTAR 미국채30년 엔화노출(합성H) ETF는 미국 장기채와 엔화에 대한 투자를 한 번에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최대 강점"이라고 말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

bhc, 반값 닭 쓰고 가격인상... 송호섭 리더십 '흔들'

국내 대표 치킨프랜차이즈 bhc가 작년 말 치킨 가격을 한차례 올린 가운데 국내산보다 저렴한 '브라질산 닭고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여론의 못매를 맞고 있다. bhc 지주사 이사회가 지난해 11월 창업주 박현중 회장을 지주사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임금육 bhc 대표이사 역시 물러났다. 이후 bhc 신임 대표이사직에 오른 '송호섭(사진)호(號)'는 출범 초반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여 흔들리는 모양새다. 19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bhc는 순살치킨 메뉴 7개의 닭고기를 작년 5월 국내산에서 브라질산으로 바꾼 뒤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 bhc는 지난해 닭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행하고 사료 가격 상승으로 국내 닭 사육 규모가 줄어들자 브라질산으로 닭고기를 바꿨다. 브라질산 수입농산물 가격은

작년 브라질산 교체 후 값 인상 "이익률 타사보다 높다" 지적에 "계약물량 소진 후 국내산 교체" 가맹점주 갈등도 현재 진행형 송대표 취임 초반부터 난항

국내산 닭고기 가격의 3분의 1 수준에서 반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닭고기 원재료 공급가격은 낮았지만, 지난해 말 2년 만에 제품 가격은 일제히 올랐다. 인상 폭은 최대 3000원 수준으로, 당시 bhc는 원부자재와 임대료, 배달주문 중개수수료, 인건비 등을 가격 인상 배경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브라질산 닭을 사용하는 순살 메뉴 7개 가격도 함께 올랐다. 교촌치킨과 BBQ도 비슷한 시



에 일제히 치킨 가격을 인상한 가운데 bhc까지 가격을 올리면서, 3사가 판매하는 치킨 한 마리 가격은 2만 원을 돌파하게 돼 소비자 원성이 컸다. 소비자단체들은 당시 bhc의 인상 근거가 부족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원가 부담 때문에 가격을 인상했다는 bhc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bhc의 2018~2022년 5년간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30.1%로 다른 브랜드와 업종 대비 유난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지난해 계약한 물량이 남아있어 아직 브라질산 닭고기를 쓰는 상황"이라

며 "계약물량이 소진되면 자연스럽게 국내산으로 바뀔 예정이며, 5월께 다시 국내산 닭으로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bhc 뿐만 아니라 타사도 닭고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외국산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부연했다. bhc는 지난해부터 크고 작은 잡음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내부 경영권 다툼이 일면서 한 차례 내용을 겪은 것이 대표적이다. bhc 지주회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스(GGS)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창업주 박현중 대표이사 회장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차영수 MBK파트너스 운영 파트너를 앉혔다. bhc 지분 100%를 소유한 GGS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다른 투자자가 각각 45%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업계는 사실상 MBK의 경

영권 개입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가맹본부(본사)와 가맹점주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2022년 7월 bhc가 가맹점의 필수품목인 해바라기유 공급가를 한 번에 61%나 올린 일이 대표적이다. 이 일로 가맹점주의 비판이 계속되자, bhc는 같은 달 다시 공급가를 낮췄다. 박 회장 사퇴 이후 스타벅스 코리아 출신 송호섭 대표가 bhc 수장으로 새로 부임했지만 갈등 진화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송 대표는 취임 후 첫 활동으로 '전국가맹점 순회간담회'를 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상생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사모펀드가 소유한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예고했고, bhc가 주요 조사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어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지영 기자 kijy42@



디아지오, 갤러리아 명품관에 '스코틀랜드 위스키바' 팝업 프리미엄 주류기업 디아지오코리아는 하이엔드 골프웨어 브랜드 '맥케이슨(MCKAYSON)'과 협업해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서쪽(WEST) 4층에 위스키 바 '하일랜드 바'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하일랜드 바는 스코틀랜드 정취와 전통을 고스란히 옮겨 놓은 공간이다. 방문 고객은 스카치 위스키를 즐기며 배울 수 있으며, 맥케이슨의 헤리티지가 담긴 아카이브 존을 둘러볼 수 있다. 스코틀랜드 대표 원단인 할리스티븐슨과 해리스트위드를 사용한 제품들도 전시 판매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디아지오코리아

'역대급 실적' 식품사... 배당금도 '진수성찬'

지난해 경기 불황에도 최대 실적을 경신한 식품기업들이 주주 배당을 확대했다. 시장의 주주 환원 요구에 부응, 주주친화적 이미지 제고와 기업 가치를 동시에 높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오리온, 롯데칠성음료, CJ프레시웨이 등 주요 식품사는 지난해 호실적을 거두면서 배당금을 확대했다. 오리온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2조9124억 원, 영업이익 4923억 원을 기록했다. 세전이익은 전년 대비 6.8% 성장한 52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오리온은 주주 가치 증대 차원에서 주당 배당금을 기존 950원에서 1250원으로 31.6% 늘리기로 결정했다. 롯데칠성음료와 함께 지난해 3조 클럽에 이름을 올린 CJ프레시웨이도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을 350원에서 450원으로 29% 늘렸다. 시가배당률은 1.74%며 배당금총액은 약 53억 원이다. '불닭' 시리즈로 해외 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삼양식품은 매년 배당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매출 1조1929억 원,



업계, 불황에도 최대 실적 경신 삼양식품 작년보다 배당 50% ↑ 주주친화 이미지·기업가치 제고 영업이익 1468억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순이익은 12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6%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삼양식품은 지난해 결산 배당을 주당 110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 공시한 중간배당 1000원을 합치면 지난해 사업 연도 배당금은 주당 2100원이다. 전년 배당금인 1400원(중간배당 800원 포함) 대비 50% 증가한 액수다. 배당금 총액은 157억 원으로 전년(105억 원)

대비 49.8% 증가했다. 일부 기업들은 지난해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전년 수준 배당금을 유지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주당 배당금은 전년과 동일한 5500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동원산업도 배당금을 전년과 동일한 110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순이익이 271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4% 감소하면서 배당성향은 13.4%에서 14.6%로 커졌다. 반면 농심은 지난해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주당 5000원의 현금 결산 배당을 결정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현대백 "고객은 구매과정서 즐거움 얻어... 100가지 경험 전달하는 공간 되어야"

인터뷰

이해찬 문화콘텐츠팀장

코로나19가 어느새 과거 일이 된 엔데믹 시대, 오프라인 유통가의 최대 화두는 '고객 경험'이다. 조금이라도 더 고객이 머물 수 있도록,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체험형 콘텐츠'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백화점업계에서 그런 흐름을 주도하는 곳이 '더현대 서울'이라는 데에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2021년 개점한 더현대 서울은 단숨에 'MZ 성지'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개점 이후 2년간 더현대 서울 전체 고객의 65% 이상이 20~30대다. 특히 MZ 고객의 시선과 발걸음을 사로잡은 핵심 콘텐츠 공간이 있다. 더현

더 현대 서울 고객 65%는 2030 복합문화예술공간 '알트원' 인기 "쇼핑 외 새로운 경험 제공에 노력"

대 서울 6층에 1160㎡(350평) 규모로 들어선 복합문화예술공간 '알트원(ALT. 1)'이 바로 그곳이다. 19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알트원 방문객의 10명 중 8명은 MZ세대였고, 누적 관객 수는 2022년 이미 70만 명을 돌파했다. 알트원은 '앤디 워홀' 대규모 회고전을 시작으로 포르투갈 사진작가 '테라사 프레이타스'의 국내 첫 전시, 프랑스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라울 피코'의 회고전까지 잇달아 열며 국내 대표 예술전시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이해찬 현대백화점 문화콘텐츠팀장(수석).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2021년부터 현대백화점 문화콘텐츠팀장을 맡아, 알트원의 새로운 전시 역사를 쓰고 있는 이해찬 팀장(수석)을 만났다. 이 팀장은 본지 인터뷰를 통해 "백화점은 더 이상 100개의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100가지의 경험을 전달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처럼

국내 백화점업계는 조금이라도 더 백화점을 찾을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대백화점도 알트원 관람객 중 60%가량은 전시를 보기 위해 더현대를 찾았다고 분석한다. '아트 콘텐츠'가 백화점 집객에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팀장은 "고객은 상품뿐

아니라 상품구매 과정에서 얻는 정신적인 즐거움을 즐긴다. 이에 새로운 경험을 위한 공간을 계속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알트원의 경쟁력도 고객에게 쇼핑 외의 새로운 경험을 전달하는 대응 노력을 꾸준히 한 결과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새로운 콘텐츠를 선정하는 것은 예사 일이 아니다. 이 팀장은 △참신성 △집객성 △대중성을 중시해 놓고 알트원 전시 콘텐츠를 고민한다. 그는 "현대백화점과 얼마나 어울리는 콘텐츠인지도 고려 대상"이라고 했다. 알트원의 전시는 현대백화점이 직접 기획하거나 대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팀장은 "좋은 콘텐츠를 찾고 협의하는 것부터 문화콘텐츠의 중요 업무"라고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 뒷짐 국회에 물건너 가나

“젊은 검사들 떠나 미제사건 늘어 재판 지연 막으려면 증원 필수”

판사 370명·검사 220명 증원법 3개월 내 처리 안 하면 자동폐기 선거국면 임시국회 열지 않을 듯

조희대 대법관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가 논의를 멈춘 탓에 관련 법안 처리는 요원해 보인다. 약 3개월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5월 중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은 3개월 내에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가 4월 총선 정국에 돌입하며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법무부가 발의한 것이다. 통상 검사 증원은 판사 증원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법안 추진은 함께 이뤄진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사정원 개정법률안은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총 370명을 늘리고, 검사정원 개정법률안은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2512명으로 총 220명을 늘린다는 내용이다. 법원과 검찰의 정원은 2019년 이후 멈춰있다.

실제 법원과 검찰 각각 판사와 검사 수

부족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최근 수년간 검찰을 떠나는 젊은 검사들의 수가 많아지며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건 처리할 시간이 부족하니 미제사건도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도 “합의부에서 처리할 사건 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며 사건 통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미제가 많아지며 재판 기일을 계속 미루는 일도 잦아지고 판사 개인별로 능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의 민사 사건 중 장기 미제사건 비율은 2010년과 2021년 상반기 고등법원에서 3.41→10.31%, 지방법원에서 0.8%→

3.65%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법관 정원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844명에서 3214명으로 늘어나 13% 증가에 그쳤다.

검찰도 최근 법원 심리가 공판중심주의로 운영되고 법원의 형사재판부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 수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6월 기준 공판검사 수는 집계가 시작된 2014년 대비 25.7%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법원의 형사재판부 수도 23.2% 증가하며 공판 1인당 담당재판부는 1.7개에서 1.67개로 사실상 현상 유지 수준이다.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검사의 사건 처리기간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5.35일에서 22.9일로 길어졌다.

이밖에 휴직 인원은 2014년에서 2021

년 64→99명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의 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이어 2025년 인천지검 북부지청이 개청을 앞둔 만큼 검사 증원은 불가피하다.

법원과 검찰의 인력난 문제가 심각하지만 국회는 반년 넘게 법안 논의에 손을 놓고 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13일 이후 계류 상태다.

2월 임시국회는 19일부터 열리고 23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3월과 4월은 국회가 선거운동에 매진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2월 중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하고 법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이수진 기자 abc123@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산 시동 건다

서울시는 지난해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 안 마련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시는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연구 및 검토에 들어가 연내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향상박형 복지제도다. 지난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1523가구를 조사한 결과,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재와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市 연구 TF 개편안 마련 생계급여 등과 관계 검토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

시는 이에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를 꾸렸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주간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연구할 계획이다.

이날 양성일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 위원장은 “최근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긍정적 효과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안심소득이 현행 사회복지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TF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대안적인 소득보장제도로 명실상부한 'K-복지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김채빈 기자 chaebi@



졸업, 새로운 출발 19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중앙아트홀에서 열린 예술대학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 드라마 '안나' 연출한 이주영 감독 “엔딩크레딧서 내 이름 빼달라” 訴 기각

쿠팡 편집으로 8부작이 6부작으로 “의도와 다른 작품” 저작권 등 소송 法 “쿠팡 최종편집, 제작사와 협의”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드라마 '안나'의 한 장면. 사진제공 쿠팡플레이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 드라마 '안나'를 연출한 이주영 감독이 쿠팡을 상대로 작품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재판장 김세용 판사)는 이 감독이 저작권, 동일성유지권, 성명 표시권 침해 금지 등을 이유로 쿠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사건은 2022년 6월 쿠팡플레이에서 8부작 드라마 '안나' 공개를 앞둔 시점에 불거진다. 그해 3월 말 촬영을 마친 이 감독은 이후 편집본을 쿠팡에 보냈는데, 쿠팡이 일부 장면을 삭제하거나 순서를 바꾸는 등 편집을 거쳐 최종 6부작으로 줄였다. 이에 이 감독은 쿠팡의 편집으로 각본을 쓰고 연출한 창작자인 자신이 당초 의도한 작품과는 다른 결과물이 됐다며 “쿠팡시리즈 '안나'에서 내 이름을 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감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감독이 드라마 제작사 콘텐츠맵과 연출 계약을 맺었고, 이후 콘텐츠맵이

OTT 플랫폼 운영사 쿠팡과 시리즈 제작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안나'의 최종편집권이 쿠팡에게 귀속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감독과 쿠팡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었지만, 제작사 콘텐츠맵과 쿠팡 사이의 협의 내용이 이 감독의 집필·연출계약에도 반영되면서 쿠팡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동일한 취지의 조항이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다”며 “이 감독 역시 편집 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쿠팡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나'가 최종 6부작으로 공개됐음에도 이 감독에게는 기존대로 8부작에 해당하는 각본료 2억4000만 원과 연출료 1억6000만 원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엔딩크레딧 연출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 달라는 이 감독의 주장도 기각했다. 박꽃 기자 pgot@

'교실 밖' 학생도 골치... “별도공간·전담인력 필요”

수업시간 적은 교사 떠안을 수도 교과·비교과 교사 간 갈등 우려 “수석교사 도입...세부지침 필요”

새학기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실 밖으로 내보내지는 가운데 수업 시수가 적은 비교과 교사에게 문제 학생이 대부분 떠맡겨지면서 교과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 갈등이 우려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전국 학교들은 학칙을 개정해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교실로부터 분리할 장소나 학습 방법 등을 정했다. 지난해 9

월 1일 시행·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살펴보면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를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지만 분리 장소와 시간, 학습 지원 등 세부사항은 학교마다 학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을 어느 장소로 이동할지, 누가 그 업무를 맡을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침이 없어 여전히 혼란인 상황이다. 일각에선 수업시수가 비교적 적은 담임·비교과 교사가 업무

를 떠안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상담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서울 초등학교 96곳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리 공간을 상담실로 지정한 경우가 19.8%(18건)였다. 이 중 절반인 18건 중 9건은 상담교사의 협조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구성원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는 지난달 학교장에 학생 분리 공간을 상담실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요청하다가 교장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상담교사들이) 부장회의에서 상담실을 수업 방해 학생 분리 공간으로 두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으나, 교사들이 다수결로 정해 어쩔 수 없이 공간을 내주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장”이 분리된 학생을 별도 공간에서 전담 인력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학교별 예산 지원과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학교 규모별, 부분별 등 분리 조치 학생들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클 것”이라며 “학교별 실태가 어떤지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물[水] 오르다

산업용 수처리 전문기업에서 **종합환경기업**으로
대한민국 대표 환경기업에서 **글로벌 환경기업**으로



초순수 생산



토털 수처리 솔루션



폐수재이용/해수담수화



연구 및 기술개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 빌딩 6층, 17층 02-6371-3900 hasco@hscleantech.com

관계사



대양엔바이오주



Water Solution



E CLEAN WATER

“아렉스·플렉스 두 축... ‘파스 명가’ 명성 이을 것”

노현민 신신제약 마케팅 이사

고밀착 하이드로겔 기술 적용 플렉스 시리즈 첫 제품 출시 아렉스 파스 냉온찜질 효과에 피부 안정성·점착력 크게 높여

‘파스 명가’ 신신제약이 기존 신신파스 아렉스에 더해 또 하나의 파스 브랜드를 선보였다. 습포제(카타플라스마)에 점착력을 높인 플렉스(flex) 시리즈다. 신신제약은 아렉스와 플렉스를 두 축으로 국내 파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노현민(사진) 신신제약마케팅 이사는 최근 서울 마곡동 본사에서 본지와 만나 “고밀착 하이드로겔 기술은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기술”이라며 “신신제약은 현재도 변화하는 사회와 생활 패턴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고 강조했다.

신신제약은 최근 고밀착하이드로겔 기술을 적용한 플렉스 시리즈의 첫 제품 ‘아렉스 마일드 카타플라스마’를 선보였다. 회사 측은 기존 아렉스 파스의 냉온찜질 효과에 피부안정성과 점착력을 높였다고 했다.

노 이사는 “카타플라스마 제형인 플렉스 시리즈에 고밀착 하이드로겔 기술을 적용해 밀착포 없이 점착력을 높였다. 일반적인 파스는 한번 붙으면 못 쓰고 버리는데 플렉스 시리즈는 점착력이 좋아 붙었다 뗐다 해도 점착력이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손으로 떼서 붙이는 파스와 달리 업계 최초로 커팅 방법을 도입해, 양 끝을 손으로 잡아 좌우로 당겨 떼어낼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에 따르면 플렉스 시리즈는 출시 4개월 만에 1만여 곳 이상의 직거래약국 중 40%에 입점했다. 노 이사는 “플렉스 시리즈는 피부가 약해 기존 파스 사용이 부담스러웠던 여성이나 노년층에 긍정



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카타플라스마 특유의 수분감으로 피부 트러블을 최소화해 최소 3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신제약은 앞으로 출시할 플렉스 시리즈에 고밀착 하이드로겔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제품에 대한 구상도 마쳤다. 노 이사는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

표로, 고밀착 하이드로겔 기술이 접목된 한방 파스를 구상 중이다. 케토프로펜 성분의 제품도 출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신신제약은 플렉스 시리즈 외에도 아렉스 로션, 경구제 아렉스 알파정 등 붙이고, 바르고, 먹는 다양한 제형을 연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파스류 최초로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시를 도입했다. 노 이사는 “국내서 파스를 자체 생산하는 곳은 드물다. 우리의 강점은 자체적으로 제품 연구개발부터 기획·판매까지 가능한 점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품질력을 인정받겠다”고 자신했다.

기존 신신파스 아렉스에 새로 출시한 플렉스 시리즈가 회사의 성장세를 이끌었으면 하는 것이 노 이사의 바람이다. 그는 “아렉스가 계속 성장하고, 플렉스 시리즈도 중요한 역할을 하면 좋겠다. 먹고 바르는 제품까지 통합 마케팅을 통해 같이 육성해 장기적으로 전 거래처 입점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기자 infactor@·사진제공 신신제약

손병두 前 한국거래소 이사장 2월 급여 부산 봉사단체 기부

이달 퇴임한 손병두(사진) 전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이 자신의 2월 급여를 부산 지역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했다.



19일 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4일 임기를 마친 손 전 이사장은 퇴임 전인 5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산사랑의열매)에 2월 급여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손 전 이사장은 한국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지역과 스킨십을 강화하며 부산 금융중심지 기능을 강화했다. 손 전 이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부산 2.0시대를 선포하며 부산 본사 기능 확대를 통한 부산 금융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애썼다. 또 사회공헌 영역을 다양화하고 정부의 국민체육진흥 정책에 부응하며, 비인기 스포츠 지원을 위해 2022년 11월 부산 연고의 실업탁구단인 ‘KRX 탁구단’을 창단했다. 부산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선 부산 지역 대학생 파생상품 스터디그룹 ‘KRX 퓨처스타’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 매년 40~50명씩 선발하고 있다.

한편, 손 전 이사장은 이달 14일 열린 정기주주총회를 끝으로 공식 임기를 마무리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8개월 만에 다시 한국 찾은 서렌도스 넷플릭스 CEO “최고 창작자들과 동행, 이제 시작”

8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넷플릭스의 테드 서렌도스 공동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이 만든 ‘오징어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가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은 큰 기쁨”이라고 밝혔다.

19일 서렌도스 CEO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한 방한 소회 입장문에서 “지난 주말, 저는 넷플릭스 K 콘텐츠 라인업을 탄생시키는 창작자들과 만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을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서렌도스 CEO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 이정재 등과 한남동 관저에서 오찬을 하기도 했다. 또 ‘오징어게임’ 촬영장을 방문하는 등 한국 콘텐츠 관계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했다.

서렌도스 CEO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

징어 게임’의 주역 이정재 배우를 만나 한국 창작업계와 차세대 한국 창작자들을 향한 넷플릭스의 애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또한 큰 영광이었다”며 “넷플릭스는 한국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창작 파트너들과의 동행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차세대 스토리텔러 양성은 넷플릭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다양한 창작 분야에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렌도스 CEO는 넷플릭스 자회사인 아이라인스튜디오를 찾아 젊은 VFX(시각 효과) 아티스트들과 소통하기도 했다. 2019년 서울에서 시작한 스튜디오는 현재 130명 이상의 국내 VFX 아티스트



‘오징어게임’ 촬영장을 방문한 테드 서렌도스(왼쪽) 넷플릭스 CEO. 황동혁(오른쪽) 감독이 촬영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제공 넷플릭스

가 근무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들 중에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넷플릭스 VFX 아카데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된 직원들도 있다.

서렌도스 CEO는 “넷플릭스 VFX 아카데미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친 1기 수료생의 70%가 넷플릭스 파트너사에 정식 채용됐다”라며 “향후 더 많은 기수의 수료

생들이 한국 창작업계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넷플릭스와 한국이 공유하는 스토리텔링을 향한 애정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노력, 전 세계가 지켜보는 하나의 이야기로 결실을 보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진심으로 가슴 벅차다”고 전했다.

송석주 기자 ssp@

동진레저 강주연 사장 승진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장녀

강태선 BYN 블랙야크 그룹 회장의 장녀 강주연(사진) 부사장이 동진레저 사장으로 승진했다.



마운티아 브랜드를 운영하는 동진레저는 19일 임원 인사로 통해 강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신임 강 사장은 2002년 동진레저 무역팀에 입사 후 실무를 거쳐며 일찍부터 탄탄한 경영 감각을 쌓아온 인물로, 동진레저 총괄 본부장과 부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인사

-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 개발협력 지원팀장 남호재 △안양지청장 이후송 △익산지청장 전현철 △군산지청장 전대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 경제전망·데이터연구실장 김주현

부음

- ▲안와르 알 히즈아지(에쓰오일 대표이사) 씨 장인상 = 17일(현지시간), 빈소·장지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02-3772-5912
- ▲이월순 씨 별세, 조정연(저축은행중앙회 상무) 씨 모친상 = 19일, 서울 여의도성모장례식장 5호실, 발인 21일 오전 5시, 02-3779-1526
- ▲배은숙 씨 별세, 지병오(전 KBS광주방송 PD)·병문(전 전남대 총장·제17대 국회의원·윤상원 기념사업회 이사장)·병주·갑순·해경 씨 모친상, 허남균(전 알리안츠생명 이사)·홍성재(전 농림부 국장) 씨 장모상, 지현영(녹색환경연구소 변호사) 씨 조모상 = 18일, 광주 서구 VIP 장례타운, 발인 21일 오전 8시 30분, 062-521-4444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日 마쓰야마 우승

상금 400만달러·부상 GV80쿠페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베라 컨트리 클럽에서 15일부터 18일까지(이하 현지시간) 진행된 ‘2024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네시스는 올해로 8년째 이 대회 타이틀 스폰서를 맡았다.

마쓰야마 히데키가 최종 합계 17언더파 267타로 우승을 차지했고, 월 잘라토리스, 루크 스트릭스가 3타 차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제네시스는 우승자에게 상금 400만 달러와 함께 GV80 쿠페 모델을 수여했다.

이번 대회는 호스트인 타이거 우즈를 비롯해 스코티 셰플러(세계랭킹 1위), 로리 맥길로이(2위) 등 세계 20위권 선수 중 18명이 참가했다. 특히 올해부터 PGA 투어가 지정한 8개 ‘시그니처 대회’ 중 하나로 포함됨에 따라, PGA 투어 최상위권 선수들이 소수정예로 출전해 기



‘2024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우승자 마쓰야마 히데키(왼쪽)가 현대차그룹 정익선 회장과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기아

존보다 높은 우승 상금과 페덱스 포인트를 두고 뜨거운 경합을 펼쳤다.

‘2024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두 개의 홀(14·16번 홀)에 선수와 캐디 모두를 위한 홀인원 부상을 내걸었다. 이에 대회 2라운드 14번 홀에서 대회 첫 홀인원을 기록한 월 잘라토리스는 GV80를, 캐디인 조엘 스톱은 GV70 전동화 모델을 부상으로 받았다.

송영록 기자 syr@

쇼트트랙 박지원·김길리, 월드컵 남녀부 동반 종합우승

박, 2년 연속 ‘크리스탈 글로브’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박지원(서울시청·사진 왼쪽)과 김길리(성남시청)가 2023-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시리즈에서 남녀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박지원은 19일(한국시간)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열린 2023-2024 ISU 쇼트트랙 월드컵 6차 대회 남자 1000m 결승에서 1분28초193을 기록, 1위에 올라 금메달을 획득했다. 결승에서 김건우, 장성우(고려대)와 함께 레이스를 펼친 박지원은 스타트와 동시에 선두로 나선 뒤 한 차례도 추월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박지원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은메달 1개를 목에 걸며 이번 시즌 월드컵 랭킹 1위(총점 1071점)를 확정했다. 스티븐 뒤부아(캐나다·1052점)를 19점 차로 따돌리고 남자부 종합 1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크리스탈 글로브’를 들어 올렸다. 박지원은 지난 시즌에도 총



점 1068점으로 ISU가 월드컵 창설 25주년을 기념해 도입한 크리스탈 글로브의 초대 주인공에 오른 바 있다.

여자 1000m 결승에서는 김길리가 1분33초037의 기록으로 크리스틴 산토스-그리즈월드(미국·1분32초944)에게 우승을 내주고 은메달을 차지했다. 김길리는 여자 3000m 계주 은메달을 더해 이번 시즌 월드컵 랭킹 총점 1211점으로 크리스틴 산토스-그리즈월드(1180점)를 31점 차로 밀어내고 여자부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김길리는 생애 첫 크리스탈 글로브를 받게 된다.

장유진 기자 yxxj@·사진 EPA연합뉴스

오정근 칼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자유시장연구원장

위협받는 '시장경제' 반듯이 세워야

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 체제가 탄생하고 미국의 독립선언문(1776)에도 반영되면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정립되었다.

모든 국민은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국민주권 사상은 경제적으로는 사유재산권과 시장의 교환원리 그리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 원리로 발전했다. 특히 사유재산권 보장의 일환으로 특허권이 보장되면서 증기기관 등 각종 혁신적인 기술이 1700년대 중반 집약적으로 등장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 결과 인류의 경제적 자유는 급격히 신장되고 마침내 이를 반영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1776)이 발간되면서 자유시장경제는 꽃을 피우게 되었다.

한국도 해방 후 남로당 준동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6·25전쟁 후 피폐했던 경제 상황에서 시장경제에 기초를 둔 경제발전으로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 이 모두 전후 피식민지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위대한 기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서 벗어난 시대착오적 철지난 좌파들의 주장이 난무한다. 심지어 그러한 주장을 일삼는

좌파 운동권 세대들이 정치권을 장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1987년 6월 항쟁을 전후해서 등장한 전대협 전 교조 민노총 주사파 등 좌경세력들은 '해방전후사의 인식' (1979)과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1974)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사유권·법치기반 눈부신 경제발전 좌파운동권 세력에 자유주의 후퇴 변영과 빈곤 가를 4·10총선 중요해

친일파들이 건국한, 태어나서는 안되는 나라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좌파 한국 근현대사 전 6권 논문집으로 모두 50여만 부가 판매되었을 만큼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바탕으로 좌파 운동권과 정치세력들은 줄기차게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등을 주장해 오고 있다. '전환시대의 논리'는 중국의 문화혁명을 미화한 책으로 1974년 초판 1쇄 발행 후 2005년까지만 초판 30쇄를 발간할 정도로 좌

파 운동권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이다. 중국 문화혁명의 근간은 유식(有識) 계급과 유산(有産) 계급을 농촌으로 내려보내는 하방(下方) 운동이었다. 이를 본떠 1970~1980년대 한국 대학생들의 농활(農活)과 공장 위장취업인 공활(工活)이 크게 유행했다.

이러한 좌파 운동권 정치세력이 지난 30여년 정치권을 주도해 오면서 좌파이념과 중복진중에 매몰된 나머지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경제를 붕괴시켜 왔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86운동권 특권층 청산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이들을 청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재건과 시장경제 창달이 힘들 정도가 된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중국 러시아의 공산주의 재건과 연계가 강화되고 있고 북한도 이들과 유대를 더욱 강화하면서 연이은 도발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번영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말살된 좌파 빈곤국으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다가오는 4·10 총선은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거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당뇨약의 좋은 부작용 '노화억제'

'모르면 약이오 아는 게 병'이라는 속담은 약을 먹을 때도 적용되는 것 같다.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진통제나 항알레르기약의 설명서를 보면 깨알만 한 글씨로 각종 부작용이 나열돼 있다. 이걸 꼼꼼히 읽다 보면 작은 병 고치려다 큰 병 얻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하는 약의 부작용은 더 심각하지 않을까.

그래서인지 의사에게서 "혈당수치(또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약을 먹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이 주저하며 "(수치를 낮추려고) 한번 노력해 보고 다시 검사해 보자"며 복용을 미루고는 한다. 심지어 지속해서 복용하는 약물들은 돈을 벌려는 제약회사와 의사의 음모로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비아그라는 알츠하이머병 예방효과

최근 학술지 '신경학'에는 비아그라 계열의 발기부전치료제에 대한 흥미로운 결과를 담은 논문이 실렸다. 영국 런던대 연구자들은 발기부전 진단을 받은 40세 이상 환자 26만여 명 가운데 비아그라 계열 약물을 복용한 14만여 명과 복용하지 않은 12만여 명을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복용 그룹이 비복용 그룹 대비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성이 18% 낮은 것을 확인했다. 처방 빈도가 잦을수록 위험성도 낮아져 20회 이상 받은 그룹은 40%나 낮았다.

비아그라는 음경면역체의 혈관을 둘러싼 근육을 이완시킨다. 그 결과 혈관이 늘어나 피가 몰려 음경이 팽창한다. 비아그라가 알츠하이머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 역시 뇌의 혈관 확장을 유발해 혈류가 늘어나면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진 결과로 보인다. 이런 효과는 두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뜻밖의 반전인 셈이다.

부작용이라는 용어의 '부'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느낌을 받지만(영어로 'negative effect'를 떠올릴 독자도 있을 것이다), 한자를 보면 부(否)가 아니라 부(副)다. 이는 부작용의 영어 'side effect'에서 좀 더 명확하다. 즉 부작용은 약물의 해로운 작용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효과로, 때로는 몸에 이로울 수도 있다. 긍정적인 부작용이 크면 이를 작용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실시해 약물의 새로운 효

과학세상

강석기
과학칼럼니스트



능(용도)을 인정받기도 한다.

사실 비아그라도 원래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하던 중 '부작용'으로 발기 효과가 나타났고 연구 방향이 바뀌어 이를 작용으로 하는 발기부전치료제로 변신한 것이다. 이번에 발견된 알츠하이머병 억제 부작용이 작용으로 인정된다면 비아그라 계열의 약물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도 승인을 받을 것이다.

최근 비만 치료제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GLP-1 모방 약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원래 이 약물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GLP-1처럼 작용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임상시험에서 상당한 체중감소라는 부작용이 보고됐다. 이를 작용으로 바꾸려는 임상시험이 성공하면서 2014년 비만 치료제로도 시장에 나왔다. 그 뒤 효과와 특히 사용성을 개선한(하루 한 번에서 일주일에 한 번 주사로) 약물이 2021년 출시되면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약물 부작용의 '작용' 반전 놀라워

몸에 이로운 부작용이 작용으로 공식 인정받기 전에 부작용을 목적으로 약물을 쓰는 사례도 있다. 노화와 장수 분야 권위자인 미국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베스트셀러가 된 저서 '노화의 종말'에서 당뇨가 없어도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을 하루 1그램 복용한다고 밝혔다. 메트포르민의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노화 억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메트포르민의 노화 억제 작용을 통한 수명 연장 효과를 보는 소규모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약물로 승인이 내려지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수많은 실험 데이터로 효과를 확인하는 싱클레어 교수는 기다리지 못하고 의사의 처방 권한을 남용한 셈이다.

앞으로 또 어떤 약물에서 긍정적인 부작용이 발견돼 작용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

'무쓸모'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기대했지만 역시 실효성이 없었다." 흡소핑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지 약 1년 됐지만 TV 흡소핑업계는 냉랭한 반응이다. 가이드라인은 송출수수료 산정방식을 유료방송사업자와 흡소핑사업자 간 상호협의를 토대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TV 흡소핑업계는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부터 우려를 표했다.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게 최대 이유였는데, 우려는 현실이 됐다. TV 흡소핑 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갈등은 지난해 극에 달했다. 심지어 TV 흡소핑 업체들이 '블랙아웃(방송 중단)'까지 불사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그도 그럴 것이 가이드라인 개정 후에도 TV 흡소핑업계의 수익성은 악화됐다. CJ온스타일, GS샵, 현대흡소핑, 롯데흡소핑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4.1%, 17.3%, 60.2%, 89.4% 감소했다.

송출수수료 상승은 영업이익에 더 큰 악재가 됐다. 한국TV흡소핑협회에 따르면 2022년 TV 흡소핑업체 7곳이 부담한 송출수수료는 1조906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지난해엔 이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가입자 이탈을 겪는 유료방송사업자가 TV 흡소핑 송출수수료를 수익모델로 삼고 있다고 지적한다. IPTV 방송 매출 중 송

노트북 너머

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



출수수료 매출 비중은 2015년 12.6%에서 2022년 30.2%로 폭증했다. 반면 방송수수료 매출액 비중은 2015년 78.7%에서 2022년 57.4%로 줄었다. 케이블TV 방송의 경우 2020년부터 흡소핑 송출수수료 매출이 방송수수료 매출을 넘어섰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송출수수료 의존증' 탈피를 위해 새 수익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TV 흡소핑업체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전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청자가 줄어들자, TV 대신 모바일·유튜브 수요 잡기에 나선 것이다.

올해도 송출수수료를 놓고 TV 흡소핑업체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가이드라인만으론 양자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유료방송사업자와 흡소핑사업자 모두 TV 시청자 감소 추세를 타개할 새로운 수익모델 찾기가 시급한 때다. peter@

이투데이, 말투데이

☆ 시드니 포이티어 명언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만은 완벽한 존재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산다." 영연방 왕국 바하마 출신인 그는 '들백합'으로 흑인 배우 최초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미국 배우다. 벼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09년 민간인 최고 영예인 자유 메달을 그에게 걸어주기도 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27-2022.

☆ 고사성어 / 학립계군(鶴立雞群)

많은 닭 가운데 학(鶴)이 서 있다는 말. 눈에 띄게 월등함을 비유한다. 죽림칠현(竹林七賢)으로 불리는 일곱 명의 선비 중 위(魏)의 종산대부(中散大夫)로 있던 헤강이 억울한 죄를 쓰고 처형당했다. 헤강의 열 살 아들 헤소가 장성하자 이부(吏部)에서

벼슬하던 칠현 중 하나인 산도(山濤)가 무제(武帝)에게 "아버지의 죄는 아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며 등용해 주기를 청했다. 무제가 비서승(秘書丞)으로 헤소를 기용해 그가 입성하자, 어떤 사람이 칠현의 한 사람인 왕웅(王戎)에게 한 말. "그제 혼잡한 인파 속에서 헤소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의 드높은 기개와 혈기가 마치 닭의 무리 속에 있는 한 마리 학과 같더군요." 昂昂然如野鶴之在雞群. 출처: 진서(晉書).

☆ 시사상식 / 개발이익환수제

토지를 개발할 때 지가상승으로 획득한 이익 중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지나친 개발이익 환수는 부동산 개발을 위축시키고 저품질 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는 반대도 만만찮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의대 증원은 백년대계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하고 있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10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2000명이 늘어난 5058명으로 확정하자 전공의와 예비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거세지면서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당장 20일부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도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투쟁에 합류할 태세다. 양측 갈등이 고조되면서 병원에서는 예정된 수술이 연기·취소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59조)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가짜 복귀' 행태를 막기 위해 각 병원에 이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 하라고 지시하고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고령화를 고려한 인구 추계상 의사 수가 태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료소비자뿐 아니라 의사도 늙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0대 의사 비중은 전체 의사의 4.8%로 12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 추세라면 2035년에는 70세 이상 의사가 20%에 이를 만큼 의사 인력 자체도 고령화될 전망이다. 지역 의료 붕괴와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실의 의사 부족 등 진료과목별 불균형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의사들도 이같은 문제의식이 없지 않을 터. 환자를 볼모 삼아 의료 현장을 외면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이같은 혼란이 의료 현장은 물론 학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교육부는 4월 말까지 대학별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당장 올해 입시부터 입학정원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표

데스크 서각

김동선
사회경제부장



에 따라 전형 발표를 미룰 수 없어서다.

알다시피 지난해 입시도 한 차례 혼란을 치렀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잡겠다며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침을 당장 입시부터 적용하면서다. 경기장에서 한창 선수들이 뛰고 있는 도중 룰이 바뀐 것인데, 기존 출제 경향으로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적잖이 혼란을 겪었다. 결과적으로 출제진 측은 수능에서 말 많았던 '킬러 문항'이 없었다고 했지만 수험생들에게선 '선지를 꼬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항을 무난하게 하려다 보니 변별력을

높이려는 교육지책이 었던 셈이다.

올해부터 늘리기로 한 의대 정원 5058명은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 이

공계열(4882명)보다 규모가 크다. 이공계 입학을 고려하던 고3은 물론 N수생이 역대급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의대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학원가는 벌써부터 의대 열풍이 거세다. 학원가는 의대 입시 관련 긴급 설명회를 여는가 하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점쳐지는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노리고 '지방 유학'을 고심하는 문의도 늘고 있다고 한다.

불확실성은 불안심리를 조장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온갖 편법이 파리를 들고 기생하기 마련이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이 매년 불확실성으로 흔들려서야 될 일인가. 지난해와 같은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예측 가능한 교육 정책을 세우고, 한 번 공표한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의대 증원이 확정된 만큼 서둘러 각의대에 정원 배정을 해야 하는 이유다. matthew@

고령시대에 수요대비 의사 태부족

정책일관성 유지해 혼란 해소하고

정원배정 서둘러 불확실성 줄여야

마음상담소

'하면 된다'는 한국적 판타지

이누미야 요시유키 박사는 일본인으로서 한국으로 유학과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를 비교해 실증적으로 연구한 문화심리학자다. 그에 따르면, 한국인과 일본인 마음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는 가벼운 판타지(?)가 존재한다. 즉, 한국인은 실제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더 유능하다'고 믿고, 일본인은 실제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더 무능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일본인은 타인이나 외부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해서 실패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인은 일본인과는 반대로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라고 생각하거나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실패했어'라고 믿는다. 어떤 경우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존재하고, 단지 내가 모를 뿐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을 알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내가 가진 능력을 실제보

다 좀 더 높게 생각하는 한국인 특유의 가벼운 판타지'에 기반했다면?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처음부터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당장은 못 쓸 수도 있다.

특히, 타인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더 유능하다'고 믿는 바로 이 한국적 판타지 때문에 일이 안 풀리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의외로 간단하다.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목표를 현실적으로 세워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상대를 바꾸어 놓겠다는 비현실적 목표는 잠시 내려 놓고, 느긋하고 여유롭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의 리듬에 맞추어야 한다. 물론, 이렇게 해도 잘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포기해야 한다. 때로는 갈망한 포기가 예상 못한 기회와 성공을 낳는다.

이재원 강점관점심천연구소장·임상사회사업가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보건복지부가 어제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다.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로 유지 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에 이은 네 번째 행정조치다. 이에 앞서 '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 2745명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 대전, 전북, 강원 등에서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의료대란 불길에 급속히 번지고 있다.

수련병원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중환자실 등에서 실질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인력이다. 전문의인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지원한다. 응급실 당직 근무도 담당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전공의는 1만3000여 명이다. 이들이 자리를 비우면 의료 현장의 마비는 불가피하다. 의료대란을 부르는 취약한 고리다.

의사 집단은 집단 이익과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이 취약한 고리를 악용하기 일쑤였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400명 의대생 증원안이 무산된 것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결정타였다. 이번에도 같은 궤도로 의료대란 열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정부와 국민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공개 압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차별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의료 대재앙'을 말한다. 협박인가, 저주인가. 의협은 여차하면 파업 카드(집단 휴진)를 꺼내들 것이다.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인술이 어디 있는지 모를 일

이다. 히포크라테스도 민망해 눈을 돌릴 것이다.

의사 집단이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의료 현장의 사실관계는 한 점도 바뀌지 않는다. 우선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구 1000명당 2.1명(한의사 제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보다 낮다. 블룸버그, AP 통신 등 해외 매체들도 우리나라의 낮은 의사 비율, 높은 소득 등을 조명하며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일반 국민 눈길도 차갑다. 기득권과 특권을 챙기기 위해 환자 곁을 떠나는 의사가 많아질수록 이 눈길은 더 차가워지고 결국엔 법적 대응 수단까지 찾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일이다. 군 의료체계를 민간에 개방하고 PA(진료보조) 간호사를 투입하기로 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비상대응체제가동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 대응도 필요하다. 의사,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테러나 다름없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의사들은 어떤 경우라도 아픈 국민 곁을 지켜야 하고, 정부도 인내심을 갖고 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올바른 지적이다. 의대 증원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고령화 추세로 미루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대승적 결론을 내야 한다.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시론

김준호

한양노동법인 대표노무사



최근 어느 기업이 '1억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여 이슈가 됐다. 정부도 출산 장려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검토 중이라고 화답했다. 반대로 직원의 임신사실을 모르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게 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기업도 있다. 아울러 올해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입법예정이다. 올해부터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육아휴직제로 인력 공백 여지 커져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길어지면 회사 입장에서도 민이 생긴다. 장기간 인력 보충은 물론이고, 육아휴직 도중 기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니 해당 직원의 수행 업무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육아제라고 할 만한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또한 비슷한 인력 공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제도도 지원금 및 휴가급여 확충을 통해 근로자들의 실제 사용을 촉진할 전망이다. 따라서 육아제도 확충 방향에 대응하는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 직원의 임신, 육아 관련 몇 가지 관리포인트를 살펴보자.

첫째, 직원이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알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일부 대기업은 임신사실을 알린 본인과 직속 상사에게 유의해야 할 법률 사항 등을 안내 메일을 발송하여 임신한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가 조치해야 할 사항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둘째, 육아휴직 도중 조직개편 등 사유로 업무에 변화가 생기면 미리 협의하여 양해를 구하고, 가능한 육아휴직자의 업무 분장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근로자의 복귀 후 업무내용 변경 또는 업무강도·밀도 증가를 이유로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육아휴직 후 사직하겠다고 근로자가 밝힌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

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한 언제든 사직의사는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휴직자가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업무 분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력 공백에 대해 보충인력을 선발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정부가 대체인력뱅크를 확충할 방침인바 적극적인 활용이 권장된다.

육아휴직자에게 인사 불이익 없어야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일례로 승진소요연한에 육아휴직기간을 불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한, 육아휴직 등 일·육아제도 시행 시 달리 적용되는 인사제도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출근을 산정 시에도 출근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짧아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이러한 제도를 세심하게 관리하여야 해당 기업도, 일·육아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저출산 대응 노력은 더욱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차후 일·육아제도의 확충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방향에 적응하기 위한 경영진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시에는 바라는 게 있나요?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해주면 좋겠네!"

Q. 더 건강해지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죠?

A. 그렇제! 하고 싶은 일 더 맘껏 하려고

성수동 '요가쌤'
64세 최영아님

LG의 시와 바이오 기술이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미래,
같이

